

최승재 “오죽하면 소상공인이 창당할” 2

‘모빌리티 기업’ 거듭 강조한 정의선 12

코스피(19일) 2153.24 (-7.45P) 코스닥 662.53 (-6.81P)
환율(달러당 원화) 1167.60 (+3.1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485% (-0.033%p)

세종 3채 중 1채 집주인은 외지인

통계청 ‘작년 주택 현황’

경기 타지 보유자 13%가 강남3구
전국 6억 원 초과 주택 비율 8.2%
30.7%는 6000만~1억5000만 원

지난해 세종과 제주의 다주택자 비율이 2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 기준으론 30%를 웃돌았다. 세종의 경우 주택 3호 중 1호는 소유자가 외지인이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택 소유자(개인) 중 2주택 이상 소유자 비율은 15.6%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올랐다. 지역별로는 세종(20.6%)과 제주(20.2%)의 다주택자 비율이 20%를 넘었다. 시(市) 단위로는 서울 강남구(21.7%), 제주 서귀포(20.9%), 세종(20.6%) 순으로 다주택자 비율이 높았다.

특히 세종 주택 소유자의 35.9%는 외지인이었다. 이 비율은 전년(37.4%)에 비해 소폭 축소됐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13.5%)을 크게 웃돌았다. 외지인 주택 소유자의 거주 지역을 보면 대전 유성구가 12.7%로 가장 많았고, 대전 서구(10.1%), 충북 청주(9.2%)가 뒤를 이었다. 제주는 외지인 소유 비율이 11.0%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나, 외지인의 거주지역이 주로 서울 강남구(3.6%), 경기 성남(3.4%), 경기 고양(3.0%) 등 수도권이었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세종은 거리가 먼 특정 지역에서 소유자가 급증했다면 프로그램 매매 등을 의심할 수 있겠지만, 외지 소유자가 대부분 인근 지역 거주자들이란 점에서 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제주는 섬 지역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외지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투자 목적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구 기준으로도 세종과 제주의 다주택

비율은 각각 32.3%, 33.6%로 전국 평균(27.4%)을 크게 상회했다. 시 단위론 서울 강남구(36.0%), 서울 서초구(35.2%), 제주 서귀포(34.6%)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세종은 9위에 해당했다. 개인을 기준으로 한 통계보다 가구를 기준으로 한 통계에서 다주택 비율이 높은 건 가구 구성원이 각자의 명의로 다른 주택을 소유했단 의미다.

외지인 집주인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이른바 ‘강남3구’라고 불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거주자가 상위권에 포진했다. 경기 지역에서 외지인이 소유한 주택 수가 총 48만3700호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2만2900호(4.7%)는 서울 송파구 거주자 소유였다. 서울 강남구(2만2500호·4.7%), 서울 서초구(1만6900호·3.5%) 거주자의 소유 주택 수도 상당했다. 강남3구 집주인의 비중을 모두 합치면 12.9%에 달한다. 이외 지역에서는 경기 성남시와 고양시, 용인시 거주자의 주택 소유 비중이 두드러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257만1000호가운데 외지인이 38만4200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외지인 집주인의 거주지로는 경기 고양시(6.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기 용인시는 6.5%, 경기 성남시가 6.4%였다.

강원에서도 경기 용인시 거주 집주인이 3.4%로 가장 많았고, 경기 수원시(3.4%), 경기 성남시(3.2%)가 뒤를 이었다. 제주에서는 서울 강남구 거주자의 주택 소유 비중이 3.6%로, 외지인 가운데 가장 컸다. 뒤를 이어 경기 성남시(3.4%), 경기 고양시(3.0%) 거주자가 제주에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자산 가액별로는 6000만 원 초과 1억5000만 원 이하 가구가 30.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6억 원 초과 비율은 8.2%로 전년(6.9%)보다 1.3%p 상승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함께하는 기업’ 영광의 얼굴들

‘2019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 페스티벌’이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7년간 ‘대한민국 CSR 필름 페스티벌’을 주관하며 사회적 책임 활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 이투데이는 사회문제 인식 확산과 가치 실현에 더욱더 앞장서고자 올해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 페스티벌’로 외연을 확장해 ‘함께하는 기업’들을 시상·격려했다. 문성유(뒷줄 왼쪽 다섯 번째부터)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유일호 심사위원장(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철 이투데이 미디어 대표 등 시상자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2019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 페스티벌’이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7년간 ‘대한민국 CSR 필름 페스티벌’을 주관하며 사회적 책임 활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 이투데이는 사회문제 인식 확산과 가치 실현에 더욱더 앞장서고자 올해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 페스티벌’로 외연을 확장해 ‘함께하는 기업’들을 시상·격려했다. 문성유(뒷줄 왼쪽 다섯 번째부터)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유일호 심사위원장(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철 이투데이 미디어 대표 등 시상자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D램 1년 만에 반등...삼성 점유율 2년 만에 최고

삼성전자 3분기 매출 8.3兆
반도체 코리아 점유율 74.7%

글로벌 시장 4.1% 증가했지만
작년 동기 대비 반토막 수준

지난해 4분기부터 침체됐던 글로벌 D램 시장이 마침내 소폭 반등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 세계 D램 매출은 154억4700만 달러(약 18조35억 원)로 전분기(148억4400만 달러·17조3007억 원) 대비 4.1% 증가했다. D램 시장의 확대 전환은 작년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9.0% 증가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디램익스체인지 “올해 2분기에 수요

글로벌 반도체 업체 D램 매출 순위
(단위: 달러, 3분기 기준, 괄호 안은 시장점유율)

1위 삼성	71억1900만(46.1%)
2위 SK하이닉스	44억1100만(28.6%)
3위 미국 마이크론	30억7300만(19.9%)
4위 대만 난야	4억7500만(3.1%)
5위 대만 원본드	1억5600만(1.0%)
6위 대만 파워칩	7800만(0.5%)
기타	1억3500만(0.9%)
합계	154억4700만(100%)

※출처: 디램익스체인지

기업의 재고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를 피해 출하를 서두르는 기업이 생기면서 D램 공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3분기 D램 매출은 71억1900만 달러(약 8조2971억 원)로 전체의 46.1%를 차지했다.

2017년 2분기에 점유율 46.2%를 찍은 이후 2년여만의 최고 기록이다.

SK하이닉스는 3분기 점유율이 28.6%로 전분기(28.7%)와 비슷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기 합계 점유율은 74.7%에 이른다.

다만 올해 3분기 글로벌 D램 시장은 작년 동기(280억200만 달러·약 32조6038억 원)와 비교하면 여전히 ‘반토막’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D램 매출도 작년 동기보다 44.0% 줄었다.

디램익스체인지 “D램 판매 가격이 20% 급락하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도 33%로 하락했다”면서 “삼성전자는 더 이상의 가격 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1.4% 올라

상가는 2.4% ↑ ...강남 오피스텔 547㎡ 증여세 8.1% 증가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올해보다 1~2% 소폭 오른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2020년 1월 1일 적용) 예상 변동률’에 따르면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와 비교해 전국 평균 1.36% 높고, 상업용 건물도 2.4% 올랐다. 이는 지난해 오피스텔 7.52%, 상업용 건물이 7.57% 각각 오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3.36%), 대전(2.03%)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세종(-4.14%)과 울산(-2.22%) 등은 오히려 기준시가가 뒷걸음질했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2.98%), 경

기(2.65%) 등에서 많이 올랐고, 세종(-4.06%)의 낙폭이 가장 컸다.

이에 따라 강남구 청담동 547㎡ 오피스텔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기준시가 평가 금액은 올해 43억 원에서 내년 46억 원으로 6.28% 오른다. 증여세 부담은 올해 16억4000만 원에서 내년엔 17억7600만 원으로 8.08% 늘어난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 표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유세 부담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기준시가의 조사 기간은 6~9월이며, 가격 반영률은 작년보다 1%포인트(p) 높은 83%였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무디스 “내년 韓 성장률 2.1% 그칠 것”

기업 신용전망 ‘부정적’ ...27개 중 긍정 한 곳도 없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9일 정치적 불확실성과 세계 경제 둔화로 한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을 2.1%로 예상했다. 한국 기업의 신용 여건은 ‘부정적’으로 진단했다.

무디스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국신용평가와 공동 주최한 ‘2020년 한국 신용전망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진단했다.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정부신용평가 담당 이사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2.1%로 올해의 2.0%보다는 미미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는 기저효과가 조금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망은 정부나 KDI(한국개발연

구원)의 전망과 차이가 있다. 흥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내년 경제성장률은 2.2~2.3%를 넘겠다”고 밝혔다. KDI는 2.3% 성장을 낙관했다.

무디스는 한국에 대해 신용등급 ‘Aa2’, 등급 전망 ‘안정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적 여건 및 재정 능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공급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저성장

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구즈만 이사는 “전 세계적으로 미중 분쟁으로 무역 규모가 감소했고 최근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도 주의해야 한다”며 “한국은 특히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이고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한국 기업의 신용도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27개 한국 비금융기업(비상장 공기업 제외) 중 단기 전망이 긍정적인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또한 국내 24개 민간기업 중 14개 기업의 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다. 이주혜 기자 winjh@



2019 스마트 건설대상 시상식

오늘 오후 3시~4시30분 장소: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3층)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승재 “오죽하면 소상공인들 창당한다고 나섰겠나”

기존 정치인들 민의 외면한 채 권력 다툼에만 몰두 유통법 개정·최저임금 개선 등 민생입법 직접 해결 “소상공인聯, 자생력 갖춘 조직으로 성장시키겠다”

최저임금 문제로 이슈를 몰고 다녔던 소상공인들이 직접 입법에 나서겠다고 정치에 뛰어 들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월 말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천명한 뒤 민주평화당과의 정책 연대를 약속했고, 이달 6일에는 창당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뉴스메이커가 된 소상공인연합회를 둘러싼 시선은 응원과 우려가 교차한다. 그 시선의 한가운데 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14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최 회장은 인터뷰 내내 “답답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답답함은 연합회가 ‘정치 세력화’를 하겠다고 발표한 뒤 불거진 여러 오해에서 비롯했다. 대표적인 오해가 국회의원 자리에 대한 욕심이다. 최 회장이 국회로 갈 거라는 소문은 연합회의 창당 선

언 이전부터 있었다. 자유한국당 입당설은 지난해부터 제기됐다.

최 회장은 “입기가 끝나면 자영업자로 돌아가고 싶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오죽하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겠나”고 반문하며 “정치 세력화는 연합회 밑에서부터 올라온 열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이달 6일 창당 발기인 대회에 최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회의 정치 참여 금지 정관 개정을 연합회 이사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당 준비위원회 역시 연합회 회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다.

연합회 조직 차원에서 창당을 위해 지원 예산을 쓰고 있지도 않다. 최 회장은 “의석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4일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 빌딩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를 갖고 있다.

수나 강령도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창당에 직접 관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정치 세력화 요

구가 폭발한 데에는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분노가 있었다고 분석한다. 그는 “본인들 권력 다툼만 하고, 민생은 돌보지 않는 데 대한 화가 소상공

공인들 사이에서 팽배하다”며 “여당에 대한 불만이 많지만, 야당을 쳐다봐도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니까 ‘소상공인들이 직접 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하는 3대 정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다. 이 중 소상공인기본법은 이달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면서 중기부가 복수의 소상공인 단체 설립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복수의 단체를 허용하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임기는 2021년 2월까지다. 1년 넘게 남은 시간 동안 그가 완성하고 싶은 연합회의 모습은 자생력을 갖춘 조직이다. 2014년 연합회 설립 뒤 2015년 회장으로 선출되고, 2018년 연임한 그는 “외풍에 시달리지 않고, 정부 지원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내년 기업 임원인사 키워드는 ‘S·T·O·R·M’

- Short**
올해보다 100명 인원 감축
- Technology**
이공계 출신 약진 두드러져
- Owner**
젊은 총수 등장 세대교체 속도
- Reference**
대내외 평판조치 적극 반영
- Multiplayer**
2~3분야 섭렵 십자형 인재

올해 연말부터 잇따라 발표될 임원 인사 핵심 키워드가 폭풍을 뜻하는 ‘스톰(STORM)’으로 추려졌다.

특히 내년 주요 기업의 임원 수는 올해와 비교했을 때 100명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는 19일 ‘키워드로 살펴본 2020년 임원 인사 특징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스톰은 △인원 감축(Short) △이공계 인재 두각(Technology) △젊은 오너 등장에 따른 세대교체(Owner) △성과 외 평판 조처 강화(Reference) △융합 인재 두각(Multiplayer)의 머리글자를 딴 키

워드다.

유니코써치는 내년 임원 수가 10년 전(6610명) 수준까지 쪼그라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100대 기업 임원 수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100명(1.5%) 줄어든 6650명 수준일 것 이란 전망이다.

이공계(Technology) 출신 임원들은 이번 인사에서 약진할 것으로 예측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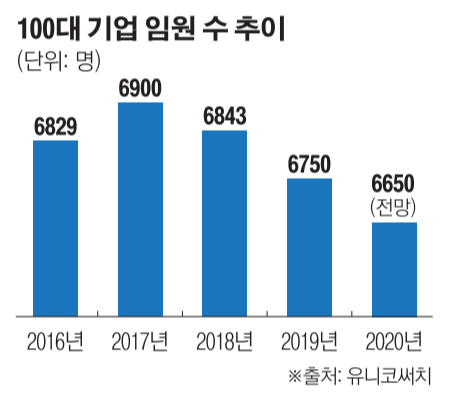
실제 올해 국내 10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중 이공계 출신이 처음 50%를 넘어섰고, 그중 ‘전학기(전자·화학·기계공학)’ 전공자가 20%에 달했다.

젊은 총수(Owner)들의 등장으로 세대 교체가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혔다.

이미 올해 100대 기업 임원 중 50년대 말과 60년대 초반 출생(55~64세)은 작년 대비 8% 줄어들었고, 60년대 말과 70년대 초(45~54세)는 작년 대비 8% 늘었다.

갑질, 횡령, 폭행 등 대내외 평판(Reference) 조처 또한 이전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임원 승진에 반영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다소 불미스러운 점이 발견되더라도 경영 성과가 좋으면 이를 묵인하려 했지만, 최근에는 기업 이미지 보호 차원



에서 평판이 좋지 않으면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2~3가지 산업 분야를 섭렵할 수 있는 ‘십자(+)형’ 인재도 이번 임원 인사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유니코써치는 예상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여성가족부

평등을 일상으로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우리의 관심으로 함께 만들어 가요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

- 온라인 페이지 운영 (11.18~12.08)
 - 추방주간 슬로건 인증사진, 나도 한마디 등 국민참여 캠페인 (여성폭력추방.com)
- 오프라인 캠페인
 - 관람형 프로그램(서울역 광장)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정책 홍보, 관련 영상 전시 및 상영)
 -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플래시몹(서울역 광장) (서울역 광장에서 50여 명이 참여 공연)
 - 길거리 폭력예방 홍보 캠페인 (퍼즐 이벤트와 함께하는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캠페인)
- 민간 연계 캠페인
 - 전국 CGV 극장 키오스크 디지털 포스터 게재 및 추방주간 홍보
-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신고 집중 홍보 (11.25~12.06)
 -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상담·신고 안내, 피해자 보호 등 지원
 - (경찰서) 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수사 조치 등
- 지자체별 추방주간 기념식, 캠페인 등 실시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기념식

- 일시 - 11월 25일(월) 14:00 ~ 15:00
장소 - AW 컨벤션센터(종로구)
- 유공자포상 시상식
 - 아동, 여성폭력방지 유공자 및 폭력예방교육 우수기관 시상
-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전시
- 여성폭력추방 영상 전시, 성폭력·가정폭력 정책 홍보

3인 3색, 폭력예방 토크 콘서트

- 일시 - 11월 25일(월) 15:30 ~ 17:20
장소 - AW 컨벤션센터(종로구)
- 문화공연
- 패널 주제 발표
 - 참석자: 권김현영 -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이선희 - 다큐 영화감독, 전문강사 박정훈 - 오마이뉴스 기자, 작가
- 경험나누기 및 키워드 토크

2019.11.25(월) ~ 12.01(일)

도움이 필요할 때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韓 품어야 亞 뚝린다”... 뷰티 종주국까지 ‘러브콜’

‘K-뷰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소비의 주축으로 떠오른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1982~2000년대생)가 스킨케어 시장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이 분야에 강점을 지닌 K-뷰티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

중국, 아세안, 러시아가 주요 수출국이던 K-뷰티는 어느새 미국, 유럽 등 화장품 종주국까지 속속 등지를 틀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와 스킨케어 시장의 수요를 잡기 위해 글로벌 브랜드의 K-뷰티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에스티 로더 컴퍼니즈가 18일 국내 스킨케어 브랜드 닥터자르트와 남성 그루밍 브랜드 DTRT(Do The Right Thing)를 소유한 해브앤비를 전격 인수키로 발표했다.

에스티 로더가 아시아 화장품 브랜드를 인수한 것은 해브앤비가 처음이다. 인수 금액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매각 대금을 1조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에스티 로더 측은 “스킨케어 카테고리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만큼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아태지역, 북미, 영국 시장에서 스킨케어 브랜드를 확장하는 닥터자르트를 인수해 에스티 로더가 스킨케어 부문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에스티 로더는 닥터자르트뿐 아니라 잠재력이 큰 브랜드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닥터자르트와 에스티 로더의

K뷰티, 글로벌 소비자 잇템 부상 에스티로더, 닥터자르트 1兆에 인수 유니레버는 3兆에 카버코리아 품어 글로벌 기업 ‘亞 매출 지렛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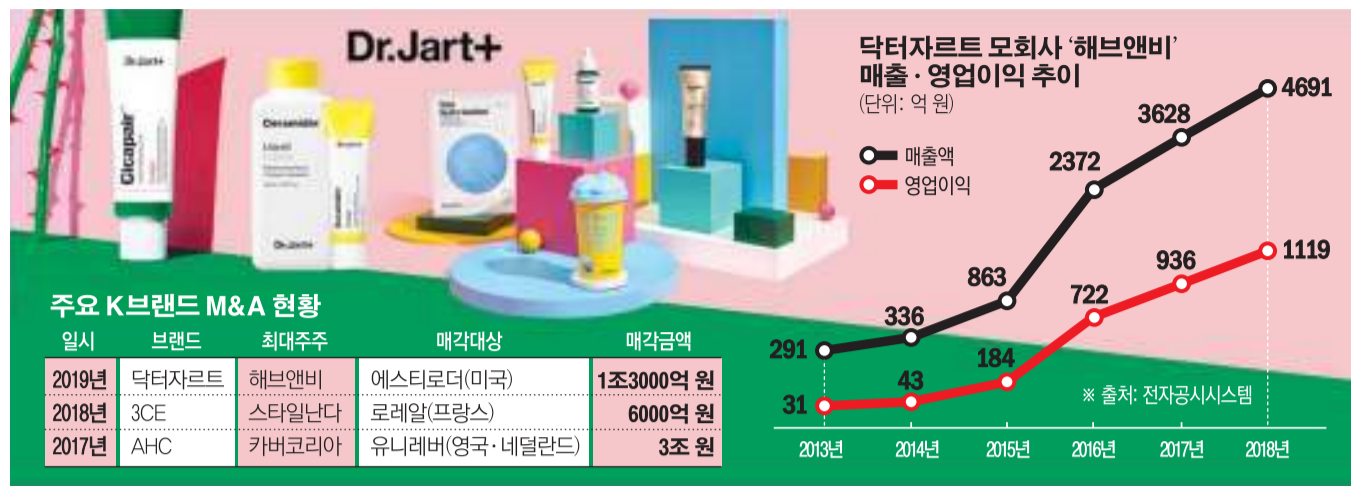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홍희정 유로모니터 뷰티&패션 부문 수석 연구원은 “닥터자르트의 BB크림으로 대 표되는 색조와 더마 콘셉트의 강력한 스킨 케어 라인업은 향후 에스티 로더의 글로벌 영향력 아래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된다”며 “닥터자르트는 인수 후에도 K-뷰티 정체성을 유지하며 유통채널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 확대에 따른 브랜드 파워 강화는 다른 K-뷰티 브랜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화장품 기업이 국내 화장품 기업을 인수한 사례는 에스티로더의 닥터자르트 인수가 처음이 아니다. 해외 화장품 기업이 국내 화장품 기업을 인수할 경우, 글로벌 화장품 기업의 넓은 유통망을 활용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실제로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인 유니레 버가 2017년 화장품 브랜드 AHC로 유명한 카버코리아를 3조 원 규모에 인수해 주목을 받았는데, AHC는 유니레버의 유통 망을 타고 지난해 중국에 진출한데 이어 올해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시장까지 공략에 나섰다.



지난해 글로벌 화장품 기업 로레알그룹이 화장품·리뷰 브랜드 스타일난다를 6000억 원 규모에 인수한 것도 성공 사례 중 하나다. 지난해 스타일난다의 매출은 전년 대비 17% 성장한 1967억 원, 영업이익은 42% 증가한 360억 원을 기록했다. 로레알그룹 인수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화장품 브랜드 3CE(쓰리센아이즈) 매출 성장률은 80%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하면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해 수

월하게 해외 진출을 꾀할 수 있다”며 “다만 해외 화장품 기업이 국내 화장품 기업을 인수할 때 인수 가격이 국내 기업이 고려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게 제시해 향후 투자금 회수라는 난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 단위로 인수돼 시장에 놀라움을 안겼던 카버코리아는 인수 후 2년 연속 인수대금을 갚기 위해 배당금을 지급했다. 2017년에는 당기순이익과 맞먹는 규모의 배당금이 지급됐고, 지난해에는 순이

익의 2배가 넘는 금액이 배당금으로 책정돼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카버코리아는 2016년 영업이익이 1807억 원 이후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고꾸라졌다. 2017년 영업이익은 1725억 원, 지난해에는 1621억 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도 2016년 1350억 원, 2017년 1235억 원, 지난해 1149억 원으로 줄었다.

스타일난다를 인수한 로레알 역시 조만간 배당금으로 인수금 일부를 회수할 예정이다. 박미선 기자 only@

국가별 한국화장품 수출 실적 (단위: 천만 달러)

2016년		2017년		2018년	
순위	국가명	수출액	순위	국가명	수출액
1	중국	157	1	중국	193
2	홍콩	124	2	홍콩	122
3	미국	35	3	미국	45
4	일본	18	4	일본	23
5	대만	14	5	대만	15
			5	베트남	17

* 출처: 대한화장품협회, 무역협회

한국 화장품 “아시아는 좁다” 미국·러시아서도 인기 ‘톱5’

K-뷰티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로레알, 에스티로더 등 글로벌 화장품 강자들이 속속 국내 중견·중소 화장품 기업을 인수하는 배경 역시 K-뷰티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대한화장품협회와 무역협회의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은 68억9000만 달러(약 8조5000억 원)에 육박했다.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는 4087억 달러(447조 6400억 원) 규모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화장품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수출액만 놓고 봐도 5% 이상이다. 내수시장을 포함할 경우 K-뷰티는 세계 8위 규모다.

특히 K-뷰티는 아시아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다. 지난해 수출 상위 10개국 중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8개국이 모두 아시아 권이다.

중국 K-뷰티의 텃밭이다. 지난해 중국 화장품 수출액은 26억56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40% 이상이 집중됐다. 홍콩, 대만 등 중화권으로의 한국 화장품 수출 비중은 60%를 훌쩍 넘는다. 여기에 개발도상국으로 화장품 인당 구매액이 늘고 있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도 한국의 주요 수

출국에 포함돼 있다.

현재 한국 화장품 수출은 중화권 비중이 높지만 점차 수출국이 다변화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유럽과 함께 세계 화장품 시장을 호령하는 미국의 경우 한국 화장품 수출 3위 국가이다. 미국은 수년째 한국 화장품의 3위 수출국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지난해 수출액 증가율은 20.8%에 달한다.

러시아 시장도 주목할 만하다. 2017년만 해도 주요 수출국 중 9위권이었던 러시아는 지난해 7위로 순위가 올랐다. 유로모니터의 러시아 화장품 시장 조사 결과도 러시아 내에서 한국 화장품의 영향력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유로모니터가 발표한 러시아 스킨케어 시장에서의 국가별 점유율에서 한국은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로 점유율이 높은 국가로 조사된 바 있다.

화장품의 본고장인 유럽 시장에서도 한국 화장품의 인기는 이어지고 있다. 주요 수출국 10위권에는 유럽 국가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프랑스가 11위, 영국이 13위에 이름을 올린 것을 비롯해 20위권에 유럽 국가만 4개국이 포함됐다. K-뷰티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

www.knoc.co.kr

바른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에너지 자원, 석유
 그 가치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한국석유공사의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변화의 본질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이기에,

한국석유공사는 기본에 충실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가는 우리, 함께하는 희망”

“CSR 활동 널리 알려 더 많은 기업 동참하게 해야죠”



기업·단체 총 198개 작품 출품
국무총리상 롯데백 등 15곳 수상
“사회적책임 활동 경제발전 활력”

기업의 사회가치 경영과 기업시민 의식 제고를 함께 고민하는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CSR फिल्म페스티벌’이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7년간 ‘대한민국 CSR फिल्म페스티벌’을 주관하며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이투데이는 올해부터 사회문제 인식 확산과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자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CSR फिल्म페스티벌’ 로 그 외연을 확장했다.

이투데이미디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코스리 등이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철 이투데이미디어 대표와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 문성유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시민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권준욱 보건복지부 대변인, 이종재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 대표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상철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 가 아니라 주변에 널리, 멀리 알려져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CSR 활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전 부총리는 환영사에서 “기업

의 사회적책임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사회공헌이 어느 일방이 다른 쪽에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상호 윈-윈하는 상생의 개념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올해 CSR फिल्म페스티벌에는 기업·기관에서 총 198개 작품이 출품됐다. 심사 결과 15개 부문에서 15개 기업이 최종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국무총리상인 함께하는 사회 부문에는 롯데백화점이 수상했다. 주이용고객이 여성이며, 임직원의 대부분이 여성인 롯데백화점은 여성 우울증의 위험성을 알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리조이스 캠페인’을 시작했다.

LG그룹은 행정안전부장관상인 사회적 가치 구현 부문에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인 건강한 사회 부문은 GS칼텍스가 수상했다. GS칼텍스는 계모, 계부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한 동화를 제작하는 한편, 212명의 노래 영상을 모아 온라인 합창 영상으로 제작해 많은 이들에게 마음의 에너지를 전달했다.

현대자동차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택시(청각장애인)’ 캠페인으로 따뜻한 사회 부문에서 수상했고, 넥슨은 기술나눔 부문에서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장관상의 희망나눔 부문에는 LG유플러스가 수상했다.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척수장애인 임경식 작가가 따뜻한 기술을 만나 작품활동에 힘을 얻는 이야기를 담았다. 또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에 U 5G 놀이터를 조성, 백혈병·소아암 환아와 치료 중절 아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보건복지부장관상재능나눔 부문에서, SK텔레콤은 사회가치 부문에서 수상했다.

빅이슈 코리아는 고용노동부장관상 꿈꾸는 사회 부문에서 수상했다. 빅이슈 코리아는 빅이슈와 함께 자립의 꿈을 이어가고 있는 오목교역 최정복 판매원의 이야기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फिल्म페스티벌’에서 다문화 어린이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합창단이 축하공연을 펼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9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CSR फिल्म페스티벌 수상작

상장명	수상 부문	기업 및 기관명	주요 공적 및 영상
국무총리상	함께하는 사회	롯데백화점	“여성우울증,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리조이스
기획재정부장관상	상생경제	CJ올리브네트웍스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육성사업 ‘올리브영의 즐거운 동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건강한 사회	GS칼텍스	편견없는 세상을 꿈꾸다, 온라인 합창단 마음 토크
	따뜻한 사회	현대자동차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택시(청각장애인)
행정안전부장관상	기술나눔	넥슨	청소년프로그래밍 챌린지, 어린이병원기금, 작은책방
	사회적 가치구현	LG	LG 의인상
보건복지부장관상	희망나눔	LG유플러스	U+CSR구필화기편, 허랑이의 꿈 “아빠, 나도 저기 가고 싶어”
	재능나눔	삼성디스플레이	희망을 노래합니다. 발달장애인 합창단 VOLED
고용노동부장관상	사회가치	SK텔레콤	SK텔레콤 전국 장애 청소년 행복 코딩스쿨
	꿈꾸는 사회	빅이슈 코리아	빅이슈와 함께 자립의 꿈을 이어가고 있는 오목교역 최정복 판매원의 이야기
금융위원회위원장상	평등한 사회	대용제약, 아름다운가게, 피자마켓	발달장애인 질명예방 도서 ‘침지마요’
	활기찬 사회	CJ대한통문	실버택배 등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상	더불어 사는 사회	NH투자증권	임직원 자발적 모금활동, 농촌사랑지원 활동, 교육·장학제도 등
	글로벌 나눔	SK텔링크	알렉스폰(재생폰)으로 파키스탄 학교 지원
	글로벌 공헌	밀알복지재단	해외 에너지 빈곤국 자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지원사업’

를 영상에 담았다. 대용제약은 평등한 사회 부문에서, CJ대한통문은 활기찬 사회 부문에서 수상했다.

NH투자증권은 금융위원장상인 더불어 사는 사회 부문에서 수상했다. SK텔링크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상의 글로벌 나

눔 부문에서, 밀알복지재단은 글로벌 공헌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기획재정부장관상인 상생경제 부문에서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심사를 맡은 최구봉 서민금융진흥원 경영혁신본부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이 기부에서부터 사회캠페인과 경영혁신 등 다양한 방면으로 경제 사회 전반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한국경제 발전에 활력을 넣고 대중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많은 작품이 출품됐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여의도 울려 퍼진 ‘힐 더 월드’ 다문화합창단 수화 노래 감명

참석자들, 강연 경청... “실무 아이디어 얻어”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 우리는 또다시 동글게 뭉게구름 되리라.”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가수 박혜경의 노래 ‘뭉게구름’이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울려 퍼졌다.

이투데이미디어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최로 열린 ‘2019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CSR फिल्म페스티벌’ 행사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모인 ‘레인보우 합창단’은 축하공연에서 이 곡을 포함해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Heal the world)’ 동요 ‘아름다운 세상’ 등 총 세 곡을 불렀다.

모두 ‘사회적 가치’라는 행사 취지에 걸맞은 노래들이다. 참석자들은 핸드폰을 들고 합창단의 노래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담았다. 참석자들은 손뼉을 치며 호응을 했고, 일부 관객은 몸을 좌우로 흔들며 리듬을 같이 타기도 했다.

힐 더 월드는 합창단원이 각자의 언어로 노래를 불러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아름다운 세상’을 부를 때는

합창단원 2명이 양옆에 서서 수화를 선배 큰 호응을 얻었다.

합창단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한종희 CJ대한통문 상무는 “합창단 선택이 CSR 관련 행사와 너무 잘 어울린다”고 호평했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이날 수상작 중 9편이 짧게 편집돼 상영됐다. 비록 수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들 영상을 바로 스마트폰에서 풀영상을 검색해 보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이러진 시상식에서 참석자들은 수상자들이 하나하나 호명될 때마다 손뼉을 치며 호응했다. 몇몇 관객들은 무대로 나가 꽃다발을 전해줬다.

참석자들은 최이현 모어댄 대표와 김정미 한화사회봉사단 차장의 강연, 발표도 진지한 표정으로 끝까지 경청했다. 일부는 관련 내용을 핸드폰, 수첩 등에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한 CSR팀 담당자는 “김정미 차장의 강연이 인상 깊었다”며 “오늘 얻은 아이디어들을 회사로 돌아가서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특별 강연

“사회적기업 역할은 쓸모없음을 쓸모 있게 하는 것”

최이현 모어댄 대표

“쓸모없음을 쓸모 있게 만드는 것. 사회적 대우를 못 받았던 분들을 더 쓸모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이현(사진) 모어댄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CSR फिल्म페스티벌’에서 ‘가방이 된 자동차’를 주제로 특별 강연했다.

최 대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기



업 경영인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버려지는 자동차 가죽 시트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려 폐차를 가죽 가방으로 변신시키는 소셜 벤처 모어댄을 만들었다. 방탄소년단(BTS),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최태원 SK그룹 회장, 스웨덴 국왕 등이 착용하면서 명성을 얻고 있다. 그는 “소재 하나 재 활용했다고 사회적 가치라고 말할 수 없다. 과정이 얼마나 윤리적인가가 중요하

다”며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해 이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 생산도 베트남이나 중국 등 싼 곳에서 만들지 않고 있다”며 “생산비는 올라가지만, 어떤 윤리적인 제품을 전달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모어댄은 폐차장에서 소재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가공·디자인에서 취약계층 채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이렇게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사회봉사 11년 장수 비결은 참여자의 행복”

김정미 한화사회봉사단 차장

“임직원과 아이, 강사들이 협업의 눈높이 굴리기를 해 지금까지 왔습니다.”

김정미(사진) 한화사회봉사단 차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फिल्म페스티벌’에서 ‘한화예술더하기’가 장수하는 비결을 한 문장으로 설명했다.

한화예술더하기는 한화그룹과 한화메세나협회가 2009년부터 11년째 함께 운영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은 지역 예술 강사들과 협업해 전국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교육과 함께 진로 및 직업 체험을 연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한화 임직원들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해 아이들에게 토론자 혹은 멘토 역할을 해준다.

김 차장은 “한화예술더하기는 지금까지 약 7318회의 교육을 진행했는데, 교육 기간 9만여 명이 참석했다”며 “예산은 회사 기부와 임직원 기부 등을 통해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11년째 운영되고 있는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모든 주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활동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장애인 학생들도 직원, 강사들의 모습을 보며 주체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임직원들도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회사에 대한 애심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술 강사 중 일부는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분들도 많았다”며 “하지만 (한화예술더하기)를 통해) 경력 단절을 극복했고, 이후에 취직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또 食言한 정치권... '데이터 3법' 처리 무산

3당 원내대표 처리 합의해 놓고 상임위서 제대로 심의 안해 '주 52시간' 보완 입법도 불발...민생·경제법안 줄줄이 표류

진통 끝에 열린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핵심 경제법안 통과가 줄줄이 무산됐다. 애초 여야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탓에 안전 목록에서 빠졌다. 경제계가 시급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입법도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88건의 법률안을 포함한 89건의 안건을 의결했지만, 이목이 쏠렸던 '데이터 3법' 등 핵심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실패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회의 두 번째 법안처리이지만,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등 오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마지막까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를 앞둔 최대 관심사는 여야가 법안통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의 처리 여부였다. 하지만 본회의의 법안목록에는 이들 법안이 포함되지 못했다. 애초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날 본회의에서 빅데이터3법,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금융 등 관련 업계에서 손꼽아 통과를 기다리는 사안이다.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3법 처리가 불발된 것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심사가 가장 빨랐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2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21일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다. '데드라인'이 압박해 있어 경제계가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꼽는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된 주 52시간제가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지만, 이 구간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서다. 법안 처리가 올해를 넘기면 기업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국회가 처리한 법안들은 14~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법안을 비롯해 소방공무원법 외에도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北 "美, 적대정책 철회 전 대화 꿈도 꾸지마"

연내 비핵화 실무협상 '안갯속' 대북제재 해제 선행여부가 관건

북한이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을 한 달여 남기고 미국과 본격적인 기 싸움에 들어갔다.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한 미국은 "성의를 보이라"며 북한 측을 압박하고 있지만 북한은 연일 고위층이 격한 반응을 보이며 적대정책 철회부터 하라고 맞서는 중이다. 조만간 열릴 것처럼 기대를 모으던 북미 간 실무협상이 물 건너가는 것이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에 이어 19일에는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김명길 외무성 순화대사가 나선 발언에 가세했다.

김영철 위원장은 이날 새벽 "대북 적대정책 철회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며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남조선과의 합동 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 자체를 완전히 중지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비롯한 체제 안전 문제와 함께 대북 제재 해제가 가시화돼야 회담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오후에는 김명길 대사가 등장해 미 국무성이 12월 중에 스웨덴에서 다시 만나자는 의사를 전달했음을 공개하면서 미국 측을 비난했다. 김 대사는 "미국은 더 이상 3국을 내세우면서 조미대화에 관심이 있는 듯이 뉘서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내달 장소나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 실무 협상 재개 가능성 자체를 일축하는 발언인 셈이다. 미국 측 반응도 회의적이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출연해 "올해 실무협상이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일환 기자 whan@



정은보(사진 왼쪽)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수석대표가 19일 한·미 방위비 협상이 결렬된 뒤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90분 만에 결렬된 한미 방위비 협상

美 "한국, 美 요구 부응 못해" 韓 "수용 가능 분담 이뤄져야"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책정을 위한 협상에 나선 한미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됐다. 미국 측이 먼저 "한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될 때 다시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마무리했고, 갑작스러운 협상 중단 선언에 외교 당국은 당황스러운 모양새다.

한국과 미국이 19일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 11차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를 열었으나, 오후 5시까지 예정된 일정은 정오도 되지 않아 종료됐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3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째 일정이었던 이날 3차 회의는 애초 예정됐던 오후 5시를 채우지 못하고 정오도 되지 않아 약 1시간 30분 만에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11시 42분께 출입 기자단에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다. 파행 끝에 회담이 끝났다"며 "미국 측이 회담 종료를 원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대표는 이날 협상 종료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 대사는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3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강조한 데 대해서는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다 공정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을 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 "새 제안이 나오길 희망한다"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 필요하다면 우리 입장을 조정할 준비도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꽃돌 기자 flowerslee@

자연을 담다 사람을 품다

"자연을 담은 에너지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늘의 태양과 신선한 바람이 에너지가 되어 우리 곁에 머물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 에너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더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한국중부발전이 만들어갑니다.



KOMIPO 한국중부발전



“입법규제 남발이 산업발전 가로막아”

19개 경제계 협회·단체 ‘산업발전 포럼’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1% 인상 되는 가운데 노동계의 경직성이 확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늘어나는 갖가지 산업규제 탓에 정부의 재정정책 역시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자동차산업연합회(사진·회장정만기)와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현대경제연구원 등 19개 기관은 19일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을 주제로 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입법, 산업, 시장진입 등에 대한 산업의 전반적인 규제를 분석하고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포럼에는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책기획실장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이주연 아주대 교수 △김진국

상반기 제조업 일자리 1.4% ↓
규제 탓에 재정정책 효과 못봐
입법규제, 20대 국회서 19배 ↑

배재대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어 △오군 한국외대 초빙교수 주재로 △이창범 동국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이현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단장 △김규옥 한국M&A협회장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제조업 일자리가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1.4% 감소, 6만3000개가 사라지는 등 최근 우리 제조업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9.3% 증가시키는 등 확

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정책이 미시 부문의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노동시장과 생산물 시장의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해결책은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기업은 망해 기업의 주인이 바뀌어도 근로자들은 해고되지 않는다”는 생각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쟁력 없이는 M&A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이 경험적 증거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경쟁력은 일자리라는 등식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력 약화요인은 규제 확대, 특히 입법규제가 핵심이라면서 “우리의 20대 국회 기준 연평균 입법 건수는 1700여 건이지만 △미국 연평균 210건 △일본 84건 △영국 36건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부입법의 경우에는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의 심사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의원입법

은 국민에게 사전에 잘 알려주지도 않고 입법 시 부작용에 관한 실증연구도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주인인 국민과 대리인인 국회의원 간 정보 비대칭성이 극대화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입법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의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주홍 실장은 ‘입법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에서 우리나라 국회 입법발의에 대해 16대 이후 발의 건수가 급격히 증가, 20대 국회의 경우 2019년 11월 15일 현재 2만 3048건으로 15대 국회(1951건) 대비 19배로 입법발의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하원은 상원으로, 상원은 하원으로 송부·심의하게 되어 있어 양원 간의 상호 견제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쌀 관세율 513% 유지 밥쌀 일부 수입 불가피

WTO 쌀 관세화 검증협의 마쳐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에서 우리나라는 쌀 관세율 513%를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밥쌀 일부 수입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정부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문제를 제기해 진행했던 쌀 관세화 검증 협의에서 애초 우리나라가 통보했던 513%의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화당량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 왔다.

이후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5개국은 관세율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고, 200~300%의 관세를 요구해 적절성 검증 작업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재욱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쌀 검증 협의 결과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40만 8700톤, 쌀 TRQ의 국영 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밥쌀의 일부 수입에 대해서는 일부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밥쌀을 수입하되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TRQ 쌀을 가공용으로만 수입해 국제규범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아 2005년부터 2014년까지는 밥쌀 30%를 의무수입하도록 했다. 이에 2017년과 지난해에는 연간 4만 톤의 밥쌀을 수입했고, 올해는 2만 톤을 수입했다.

국가별 쿼터가 정해져 쌀이 수입되더라도 쌀 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최근 WTO 개도국 지위 포기과 관련하여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로 출범한 WTO 체제 이후에 차기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된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인천공항 ‘업그레이드’

5년간 4.8조 투입 활주로 등 확장 년 1억명 수용... ‘빅3 공항’ 도약

인천공항이 2024년까지 활주로나 여객터미널 확장 등을 통해 세계 3대 공항으로 도약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4 활주로 건설과 제2 여객터미널 확장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기공식을 19일에 인천공항 제2 터미널 건설현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을 비롯해 박남춘 인천시장, 안상수 국회의원, 구분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관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3월 29일 개항한 이후 동북아 허브공항의 지위를 견고히 하고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자 지속해서 확장사업을 시행했다. 2018년에는 3단계 사업을 통해서 제2 여객터미널을 개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저가 항공사의 급격한 성장 등에 따라 장래 항공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해 2030년에는 1억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의 허브 공항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항공 수요에 대응해 기반시설(인프라)을 적기에 확충하고 동북아 대표 공항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2024년까지 4단계 건설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은 총 4조 840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2 여객터미널 확장, 제4 활주로 신설, 계류장 및 연결교통망 등을 확충하는 게 골자다.

우선 제2 여객터미널 확장으로 연간 수용 능력 총 1억6000만 명의 초대형 허브공항이 완성되고 세계 최초로 여객 5000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여객터미널을 2개 보유하게 된다.

이 같은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4년 국제선 여객처리·공항 수용 능력은 두바이, 이스탄불 공항에 이어 세계 3대 공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가상·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여객맞춤형 서비스를 대거 도입할 계획이다. 4단계 사업이 시행되면 건설 기간에만 약 6만 개 일자리와 약 13조 원의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김경욱(왼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2차관이 1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건설현장에서 열린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기공식’에서 구분환(세 번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박남춘(네 번째) 인천시장 등 참석자들과 기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단 혁신 통해 일자리 ‘5만개+α’ 만든다

정부 ‘지역주도 혁신거점’으로 육성...임금직접지급제 등 시행

산업단지가 달라진다. 수차례 나왔던 산단 개선대책에도 가동률과 고용 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그간 산업단지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산업단지를 ‘지역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대개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9일 서울 구로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에서 제1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 등 일자리 대책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그간의 산업단지 개선 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실제 산단 내 일자리 미스매치, 산업단지 가동률·고용 여력 하락, 입주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공동 개선방안인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내놨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산단이 혁신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정부 지원 규모와 방식을 대폭 증대 전환해 향후 5년간 5만 개 플러스알파(+α)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단지 지원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 개별 산단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고 허브산단 중심의 종합지원을 추진한다. 중앙 주도 산단정책에서 지역 주도의 산단 중심 혁신계획을 수립한다. 부처 간 흩어져 있던 지원을 하나로 모아 범부처 차원의 패키지 지원을 구축한다. 규제는 줄이고 기업과 진흥 중심을 통한 투자를 늘린다.

정부는 내년에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파급효과 등이 우수한 지자체 5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보상을 통해 2022년까지 15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도 마

련했다. 적정수준의 공공 건설투자 확대와 인력양성 지원의 효과를 제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근로자와 매칭하는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정보제공 확대, 맞춤형 알선 등을 통해 십·반장 인맥 등 낙후된 채용경로를 공적 취업 지원 시스템으로 보완한다. 건설기계 종사자 보호를 위해 자가용 기계의 유상운송과 타대사업자 기계책임대 등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현장별 보증제도를 시장에 정착 시켜 대대 지급을 강화한다.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사 부도·파산 등의 경우에도 임금보장이 가능하도록 대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한다. 이밖에 내년부터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도 5년간 최대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공정위, ICT기업 전담팀 가동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구글 등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전담해 조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본격 가동했다.

공정위는 시장감시국 주도하에 출범된 ICT 분야 전담팀이 15일 점검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향후 소송과정 등까지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가 설치한 TF팀이다.

전담팀은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3개 분과로 나뉘며 팀의 총인원은 15명 내외다.

온라인 플랫폼 분과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차별 취급이나 배타 조건부 거래 등을 통해 기존 지배력을 키우는 행위를 감시한다. 모바일 분과는 모바일 시장 독과점 사업자가 기워팔기 등을 통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는지 주로 살펴본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5만원대 무제한
5G 스페셜 요금제



3만원대 합리적인
5G 라이트 청소년



3만원대 실속있는
5G 라이트 시니어

차원이 다른 5G 서비스를
당신에게 딱 맞게



다양한 5G 요금제

오직 유플러스에서만

- '19.12/31까지 무제한 5G 요금제(5G슈퍼플래티넘, 5G플래티넘, 5G프리미엄, 5G스페셜) 가입한 고객에 한해 24개월간 속도 제어 없이 5G 데이터 무제한 이용 가능
- 무제한 데이터 혜택 악용하여 네트워크 품질 저해하거나,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장애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일반 사용자 보호를 위해 데이터 속도 제어, 이용제한, 차단, 해지 가능
- 부가전화(15XX, 16XX 등)는 기본제공량 300분 초과시 과금, 국제전화는 별도 요금으로 과금, 음성 통화량월 3회 이상 하루 600분 또는 한달 10,000분 초과하거나 상업 목적으로 이용 시 사용량제한

일상을 바꿉니다
U+ 5G

Z홀딩스 ‘야후-라인 통합’ 하루 만에 주가 8% 폭락

“신주 발행엔 가치 하락 우려 양사 시너지 효과도 불투명” 낙폭 3개월來 최대 낙폭

아시아 인터넷 시장의 판도를 뒤엎을 야후재팬과 라인이 통합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시장에서 통합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야후재팬을 운영하는 Z홀딩스(ZHD)의 주가는 전날보다 8.06% 떨어진 388엔에 거래를 마쳤다. 낙폭은 8월 5일 이후 3개월 만에 최대였다. 양사가 통합 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약 60%의 희석이 발생, 보유 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량 매도를 일으켰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일부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양사의 통합 시너지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전날 양사는 이번 통합 과정에서 ZHD가 신주 28억 주를 발행하고, ZHD 모회사 소프트뱅크와 라인 모회사인 한국 네이버가 절반씩 출자하는 새로운 회사에 이를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ZHD의 발행 주식 수는 현재보다 60%가 늘어난다.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아돌 고알 애널리스트는 전날 보고서에서 “희석화에 의해 시너지 효과가 명확해질 때까지는 ZHD 소액



가외베 겐타로 Z홀딩스 사장(왼쪽)과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 사장이 18일 도쿄에서 경영 통합을 발표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도쿄/블룸버그

주주에게는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씨티그룹의 쓰루오 미쓰노부 애널리스트는 “전략적 의도는 명확했으나, 통합 후 시너지 효과의 타이밍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불확실성이 있다”며 주가에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통합된 새 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니혼게이지이신문(이하 닛케이)은 “새 ZHD의 주주 입장에서 지배구조는, 모회사가 비상장 합작사(JV)-소프트뱅크(SB)-소프트뱅크그룹(SBG)인 ‘4세대 구조’라며 “기본 합의에서는 ‘통합이 소액 주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지만, 향후 이익 상반의 우려는 지

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닛케이는 “통합 이후 이사회는 ZHD와 라인에서 각각 3명, 독립이사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균형을 고려한 만큼 외부에서는 의사 결정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양사의 이견이 노출된 점도 지적했다. 라인의 이데자와 사장이 “제품은 최고제품책임자(CPO)에 취임하는 신중호 라인 대표이사가 주도할 것”이라고 하자, ZHD의 가외베 사장이 “사업은 내가 주도하고 싶다”고 번복했다.

또 시장의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소모전에 돌입한 모바일 결제 사업의 수익 창출이다. 양사의 이용자를 단순 합산하면 5500만 명이 넘는데, 그것을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 짓느냐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는 “(구체적 방안은) 통합 후 이야기”라며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2016년에 상장한 라인의 시초가는 4900엔이었다. 비공개화에 따른 TOB(주식공개매수) 가격은 5200엔으로 투자자들의 기대에 충족했다고는 할 수 없다. ZHD 소액 주주는 통합 과정에서 발행 주식이 늘어 출자 비율이 떨어진다.

시장은 이번 통합이 강자의 탄생이나, 아니면 약자 연합의 탄생이나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장의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하는 한 당분간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베트남 말고 우리도 있어요” 외자유치 팔 걷은 泰·말레이

脫중국 기업 공장 유치 위해 법인세 감면 등 우대정책 발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동남아시아의 외자유치 경쟁에 불을 붙였다. 동남아 일부 국가들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중국에서 탈출하는 기업들의 생산 기지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 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고 니혼게이지이신문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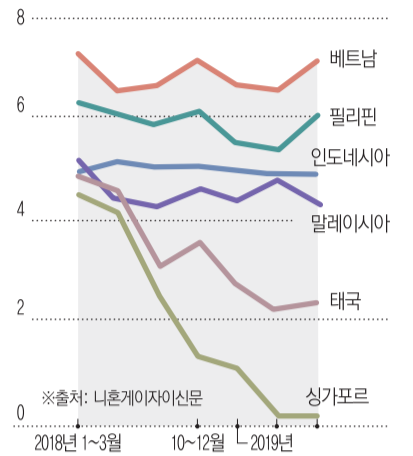
최근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우대 정책을 각각 발표했다. 신문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2021년 말까지 첨단 전자산업과 생화학산업 등 중점 분야에 10억 바트(약 39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 기업의 법인세 절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태국에는 타이어 제조업체 프링스웁산이 약 6억 달러(약 7012억 원)를 투자해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중국 건설 대기업 광시건공집단이 태국 부동산 개발 CP랜드와 합작으로 공업 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는 등 이미 많은 중국 기업이 대미 무역 전쟁을 피해 태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자국에 신규 투자하는 해외 대기업과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에 걸쳐 연 10억 링깃(약 2809억 원) 규모의 우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용은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이 될 전망이다. 올해 1~6월 말레이시아에 대한 외국 직접투자액은 총 495억 링깃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2배로 늘었다.

동남아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GDP 증가율)



말레이시아 정부는 새로운 혜택으로 외자유치를 가속화시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외자유치로 서플라이 체인이 강해지면 향후 5년 간 10만 명 규모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남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도 투자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달 “미·중 갈등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입지를 극대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규제 완화와 법인세 감면 등을 추진해 중국을 떠나는 외자를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6~8월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생산 거점을 옮기기로 한 33개사 중 23개사는 이전 국가로 베트남을 선택했다. 하지만 베트남도 예전 같지 않다. 제조업 노동자의 인건비는 2014년 1월 시점 베트남 하노이에 비해 태국 방콕이 2.4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는 2.8배였다. 하지만 올 1월 시점에는 모두 1.9배로 격차가 줄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마오리족 환영받는 英 찰스 왕세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남 찰스(오른쪽) 왕세자가 뉴질랜드 국민 방문 사흘째인 19일(현지시간) 오클랜드 총독 관저에서 전통 마오리족 방식으로 환영받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찰스 왕세자의 동생인 앤드루 왕자의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 반박 인터뷰를 놓고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왕실 내부에서도 “앤드루 왕자의 왕족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클랜드/AP연합뉴스

트럼프, 파월 면전에 “금리인하” 돌직구

9개월 만에 깜짝회동... “他國보다 너무 높다” 대놓고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백악관에서 “깜짝” 회동을 갖고 또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18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까지 배석시키고 파월 의장과 30분간 대화했다. 대통령 공식 일정이 아닌, 그야말로 “깜짝” 회동이었다. 트럼프와 파월은 그동안 몇 차례 전화 통화를 하기는 했지만,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를 한 건 2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해서 파월 의장을 향해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해 온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됐다. 작년 금리 인상에 불만을 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 동안 파월 의장과 금융 당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한 연준인 만큼 트럼프와의 깜짝 회동에 대한 세간의

시선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의식한 연준은 회담 이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날 회동은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파월은 정책 결정은 미국 경제 전망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에 의해 모두 결정된다는 생각을 강조하는 한편, 금융 정책에 대한 자신의 전망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또 “파월 의장이 법률에 따라, 정치적 고려 없이, 고용을 늘리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도 회동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파월과의 만남은 매우 좋았고 화기애애했다”면서 “금리와 마이너스 금리, 저물가, 금융 완화, 달러 강세와 그것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유럽연합(EU) 등과의 무역을 비롯한 모든 이슈를 논의했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결국 이번 회동에서 파월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고 시인했



트럼프 미국 대통령 파월 연준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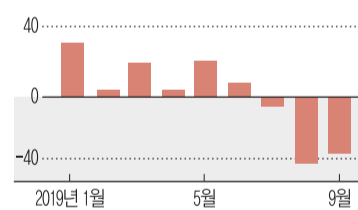
다. 나중에 올린 트윗을 통해 “오늘 아침 파월과의 만남에서 미국 금리가 다른 경쟁국들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사실을 지적했다”면서 “달러 강세가 제조업과 경제 성장을 망치고 있다.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가 탄핵 청문회 등 수세에 몰리자 경제에 충격을 기울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다음 달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성과에 조금해진 트럼프가 파월을 백악관으로 불러 압박에 나섰다라는 평가다.

김서영 기자 0jung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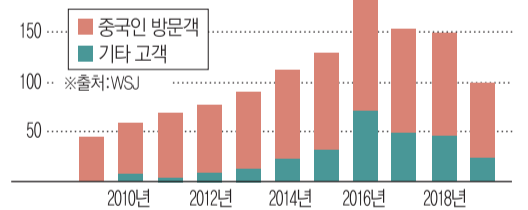
홍콩을 찾는 중국 본토 관광객 추이

(단위: %, 전년 대비) ※출처: WSJ



홍콩 생명보험상품 신규 계약 가치

(단위: 10억 홍콩달러) ※출처: WSJ



시위 장기화에 홍콩 보험시장 ‘된서리’

中 관광객 급감 매출 곤두박질

수개월에 걸친 반정부 시위와 사회 불안으로 홍콩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의외의 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홍콩 관광진흥청에 따르면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격화한 8월은 중국 본토에서 홍콩을 찾는 방문객이 전년 동월 대비 42%나 감소했다. 9월에는 35% 줄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사들도 관광객을 상대로 한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 아시아 전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AIA는 10월 하순, 자사 최대 시장인 홍콩에서의 신규 보험계약 가치(VONB, 신규 계약으로 기대되는 이익)가 3분기(7~9월)에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홍콩 보험사들은 미국 달러, 홍콩 달러 표시 보험이나 연금 상품을 판매

하며 중국 본토인들을 유혹했다. 상품 대부분은 해가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저축이나 투자형 상품으로, 중국인들은 이런 상품들이 위안화 약세에서 자기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고 여겨왔다. 예를 들어 5년간 연 1만 달러(약 1169만 원)를 납입하면, 이 자금이 전 세계 자산에 투자된다. 가입자가 50세가 되면 전액 인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생 배당금이 지급되며, 기본적인 생명보험 보장도 제공되는 식이다. 사실 중국에서는 개인이 해외로 옮길 수 있는 자금이 5만 달러로 제한돼 있다. 보험은 이런 자본 규제를 피해 거액의 자금을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였던 것이다.

홍콩 보험감독 당국인 보험관리감독에 따르면 중국 본토에서 온 방문객에 대한 홍콩의 보험 상품 판매액은 2016년에 72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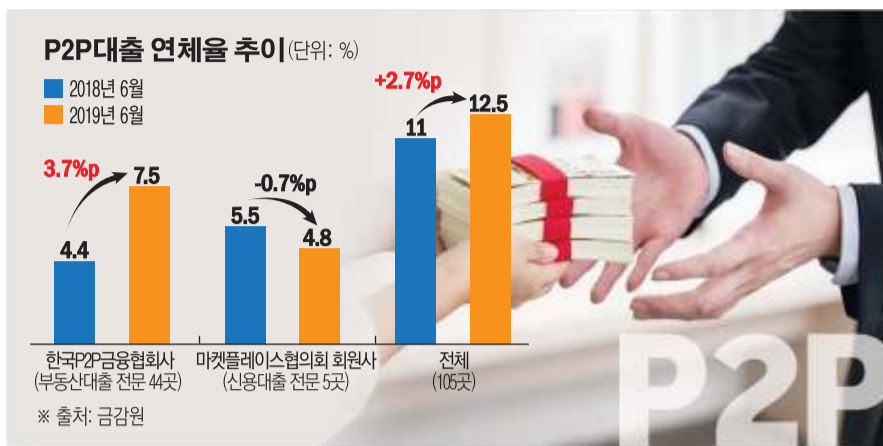
배수경 기자 sue6870@

금감원, P2P '옥석가리기'... 高연체율 업체 '좌불안석'

P2P법 시행 앞두고 현장검사 부동산 투자 소비자 주의 발령 등 중·소형 부실 업체 제재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개인 간 금융 거래(P2P) 업체를 대상으로 막바지 현장검사에 나섰다. 주로 부동산 대출 전문업체를 중심으로 조사해 최근 연체율이 치솟은 일부 업체 제재 여부가 주목된다. 또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P2P업체와 달리 개인신용대출 P2P업체는 순항하고 있어 내년 P2P금융법 시행 전까지 업계 내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과 P2P업체에 따르면, 금감원 여신검사국은 최근 P2P업체 현장 검사 일정 계획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을 주력 상품으로 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했고, 연말을 앞두고 검사 일정을 대부분 소화했다"며 "부동산 P2P사는 대형사 위주로 진행됐으며, 나머지 업체는 계획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제도권 밖에 있는 P2P 금

융사를 직접 검사할 순 없다. 하지만, P2P 금융사가 대부업체를 등록해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대부업체를 준용해 여신금융감독국이 관리·감독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결과를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3~4월 대규모 P2P 업체 현장검사 이후 5월 말 결과를

발표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금융당국의 부동산 P2P 업체 투자 소비자 주의 발령과 특정 업체 연체율 급상승 등으로 중형 P2P업체 제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특히, 중·소형 업체를 중심으로 부실 논란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 제재도 해당 업체를 중심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금감원은 현장 조사에서 20개사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올해도 4곳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부동산 P2P업체는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연체율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P2P금융협회가 공시한 10월 말 기준 연체율 평균은 8.06%로 지난달 8.8%보다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연체금액 상승세를 기록했다. 자율

공시 체계를 약화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자 상환 지연 등 부실 논란 중인 비온드펀드의 공시 연체율은 6월 말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 비온드펀드는 홈페이지 공시에서도 이달 연체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밖에 업체들도 최신 연체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곳이 많아 자체 공시정보의 정확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이다.

반면, 개인신용대출 P2P업체는 부동산 P2P업체와 달리 순항 중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신용대출 전문업체 연체율은 4.8%로 부동산대출 업체 연체율 7.4%보다 낮았다. 금융당국 역시 신용대출 전문업체의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신용대출 업체 렌딧은 P2P업체 최초로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신규 투자를 받는 등 성과를 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우리銀, 베트남 LCC '비엣젯' 항공기금융 1636억 단독 주선

우리금융은 업계 최초로 베트남 민영항공사의 항공기금융을 단독 주선했다고 19일 밝혔다.

베트남 민영항공사 비엣젯의 '에어버스 321'의 10대 구입자금인 1억4000만 달러(약 1636억 원)를 주선했다.

비엣젯은 베트남 1위 저비용항공사(LCC)다. 74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호찌민 구간을 비롯해 한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다낭, 나트랑, 푸꾸옥 등 총 9개 직항로를 운항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거래를 통해 동남아 항공기금융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현지 우량기업에 대한 영업 기회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항공기금융 또한 베트남 IB데스크와 함께 베트남 항공시장을 철저히 분석해 얻어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재보험사 신용등급' 한눈에 본다

보험개발원, 세계 4대 신평기관 일괄 조회 시스템 구축

보험개발원은 최근 재보험사 리스iting 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세계 4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재보험사 리스iting 서비스는 보험사가 우량한 재보험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격 재보험사의 목록을 작성·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보험개발원은 그간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S&P와의 계약을 통해 재보험사별 신용평가등급 조회서비스를 보험사에 제공해 왔다. 이번에 A.M. Best, Fitch, Moody's와의 신용평가정보 이용 계약을 추가로 체결함에 따라, 세계 4대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재보험사 신용평가등급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다양한 신용평가등급 정보 활용이 가능해져 보험사의 재보험 계약 관리 업무의 효율화가 예상된다.

신용평가정보의 확대 제공 이외에도 신용평가등급 변동시 즉시 알람서비스, 리스iting 실시간 진행상황 조회서비스 등 보험사의 재보험 업무 편의성 및 신속성을 도모하는 기능도 다수 추가됐다.

유승완 보험개발원 팀장은 "보험사의 건전한 재보험 거래 지원이라는 제도 시행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 시스템 개편, 제공 서비스 확대 등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기업 PR>

미래에셋생명, 17대 질병 '100% 선지급' 보장

'건강담은 GI변액종신보험'

미래에셋생명은 GI 종신보험 '건강담은 GI변액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중대한' 질병만을 보장하는 기존 CI 종신보험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GI 종신보험으로 설계됐다. 일반 CI보험은 발병 확률이 높은 3대 질병을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의 형태로 구분한다. 이는 해당 약관에 명시된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 받을 수 있어 보험금 수령이 다소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건강담은 GI변액종신보험'은 3대 질병 보장에서 '중대한'이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존 CI보험의 단점을 보완해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한 17대 질병에 대해 진단 및 수술 시 가입금액의 100%까지 선지급 진단비를 지급한다. '100% 선지급형'을 선택하면 선지급 진단



비를 받고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주보험 가입금액의 30%를 유족들에게 연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또한 기존 CI 보험에서 선지급 진단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증갑상선암(소액암)과 남성유방암(특정암)을 일반암으로 분류해 주보험 보장에 포함했고, 추가로 중증루푸스신염, 루게릭병, 다발경화증 등도 주보험 보장에 포함하며 보장 폭을 넓혔다.

www.douzone.com

인공지능 ERP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다!

더존 iCUBE가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기계학습 방법론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

기업의 업무는 이제 국내 유일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에 맡기십시오.

회사 밖에서 급한 임무가 생기면 어떡하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실시간 업무 진행이 가능한 스마트워크

회계처리 쉬운 방법 없을까?
거래내역 자동수집, 자동분계,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데이터 오류까지 자동 검증

우리 회사 경영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까?
ERP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업에서 필요한 형태로 수정할 수 있는 분석툴 제공

믿을 만한 거래처인가?
거래처 신용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기업용 ERP

- 회계관리
- 인사-급여관리
- 영업관리
- 무역관리
- 구매-재재관리
- 생산관리
- 외주관리
- 서비스관리
- 경영정보관리
- 공시현장관리

더존 iCUBE
더존 iCUBE Cloud Edition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ERP

- 예산관리
- 자산관리
- 후원자관리
- 회계관리
- 인사-급여관리
- 경영정보관리
- 영업관리
- 구매-재재관리
- 생산관리
- 외주관리

더존 iCUBE G20
더존 iCUBE G20 Cloud Edition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문의 1688-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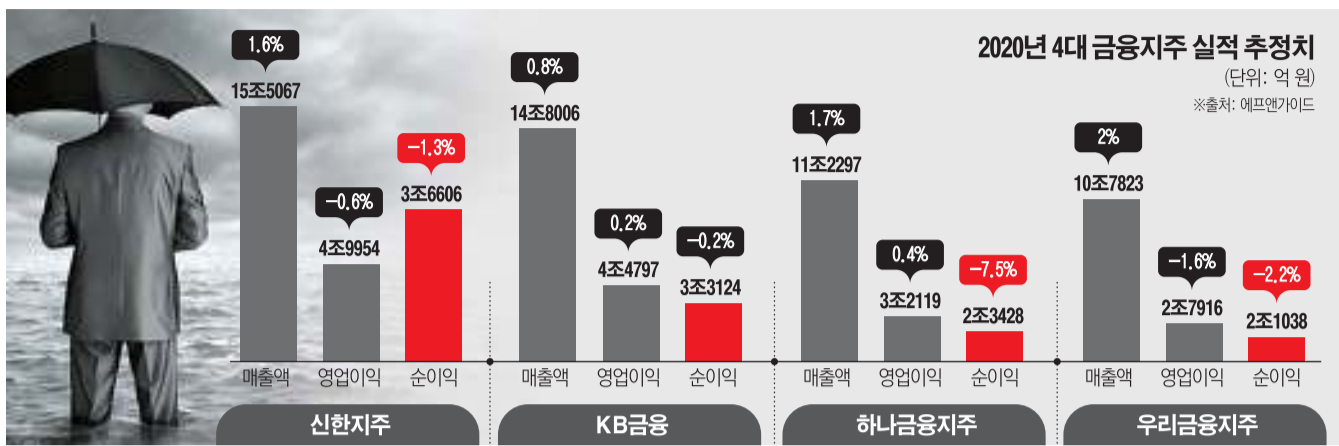
저금리·규제·경쟁 심화... 은행권, 내년 경영 '시계 제로'

DLF 사태로 사모펀드 판매 제한 제3인행 출범에 과열 경쟁 우려 추가 금리 인하 땐 'NIM' 직격탄 은행 ROE 6%대로 하락 가능성 지주 수익 5년 만에 마이너스 전망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의 말이다. 초저금리 속에서 대출에 이어 영업 규제까지 강화되고 있다며 걱정이 한가득이다. 핀테크에 대항할 '혁신'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에 밤잠까지 설친다고 한다. 그의 근심은 숫자로 대변된다. 내년 금융지주사 순이익은 5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시계 제로다.

◇제로금리에 수수료 규제까지 '꼭 막힌 영업' = 19일 관련 업계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국내 은행의 평균 순이자마진(NIM)은 1.61%를 기록했다. 3년 만에 첫 하락 반전이다.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인하되



면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금리가 1%포인트 하락할 때 NIM은 평균적으로 6~9bp(1bp=0.01%) 하락했다. 주요 금융연구기관에서는 내년 대출 성장률이 5% 초중반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연구실장은 "가계대출은 정부 정책으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기업 대출은 이미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이 높아 확대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으로 활로를 모색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대책 방안이 따르면 앞으로 은행은 손실 위험이 20~30%인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다. 고통화 시대에 맞춰 최근 은행들이 영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신탁도 대상에 올랐다.

대책 발표 하루 뒤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일부 은행의 DLF 문제가 전 은행권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으로 확대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반기를 든 것도 이 때문이다.

대마불사'도 옛말이다. 혁신으로 무장한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경계를 넘나들며 시장을 넘보고 있다. 당장 1300만 명을 거느린 토스가 제3인터넷 은행 사업권을 딸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이 연구실장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확대와 신규 인가 가능성, 오픈뱅킹 시행 등으로 예금 수취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금융지주순이익, 5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 이런 우려들은 내년 예상 실적표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신한·KB·하나·우리금융지주의 2020년 순이익은 11조4196억 원으로 추정된다. 전년(11조7094억 원) 대비

2.47% 감소한 것으로, 5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이다.

하나금융은 올해보다 7.5% 줄어든 2조3428억 원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크다. 우리금융(2조1038억 원, 전년 대비 -2.2%), 신한금융(3조6606억 원, -1.3%), KB금융(3조3124억 원, -0.2%)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은행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현재 10%대에서 내년 6%대 중반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수익성이 올해보다 더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물경제 위축으로 은행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 소장은 "아직 기업 대출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편이지만, 최근 업황지수 등이 안 좋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은행 대출이 증가에 쏠리면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문제는 체력이 작은 지방은행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국장은 "지역경기가 안 좋고 중기 대출이 많은 반면 가계대출이 없다 보니 만기 기간이 짧고 하락폭이 더 크다"며 "지방은행 생존 전략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살 때 타. 팔 때 타. 투자 타이밍이 더 티레이더. 인공지능 티레이더가 주식부터 펀드까지 투자 타이밍을 알려준다.

선생님, 투자하는 방법? 티레이더, 티레이더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업법 제19-62호(2019.02.28)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티레이더 www.tRadar.co.kr | 고객센터 1588-2600

‘新남방 공략’ 고삐 쥘 시중銀 보릿고개 넘을 新동력 찾는다

국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중 은행들은 자연스럽게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맞춰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 현지 은행을 인수합병(M&A)하거나 지점 개설을 통해 현지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최근 베트남 자산규모 1위 은행인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의 외국인 전략적 투자자 지위를 얻었다. BIDV는 1957년에 설립돼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지분 95.3%를 보유했던 국영 상업은행이다. 증권사와 리스사, 보험사, 자산관리회사 등을 거느린 자산 66조 3000억 원 규모의 베트남 최대 은행이다. 이번 지분 취득으로 BIDV가 보유한 베트남 전역 1000여 개의 지점 및 사무소, 5만8000여 개의 ATM 등 방대한 영업망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2009년 11월 신한베트남은행 현지법인을 설립하며 베트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내 은행이다. 신한베트남은행은 올 3분기 기준 외국계 은행 중 최대 채널인 36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내년 4~5개를 추가 개점할 계획이다. 신한베트남은행은 여신·수신 상품을 통한 기업·소매금융, 신용카드 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텍스(E-Tax)와 펴(Firm)뱅킹 서비스 등의 활성화를 통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2016년 9월부터 미얀마에서 유일하게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아 지점 형태로 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7년 하노이 지점 개설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은행은 2017년 베트남우리은행 법인을 설립하면서 현지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6개 영업점에 대한 동시 설립인가를 획득한 후 영업점을 추가로 신설했다. 외국계 은행이 동시에 6개 영업점 인가를 받은 것은 베트남우리은행이 최하다. 올 7월부터 A.I 머닝리시 기술 개인신용평가 모형 기반 모바일 신용대출 서비스를 하면서 모바일 중심의 비대면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13개 영업점으로 확대해 주요 거점 영업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베트남 호찌민 지점의 자본금 확충을 통해 기업금융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2월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를 지점으로 전환했다. 하노이 지점은 2011년부터 영업 중인 호찌민에 이어 베트남 내 두 번째 지점이다. 서울 본점과 하노이 지점 내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특화된 디지털뱅킹 모델을 개발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현지 리테일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2017년 3월 'KB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를 설립해 현재 총 17개의 영업점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신규 영업점 9개를 개설해 '전통적 소액대출'과 '주택자금대출'의 결합을 통해 타사와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

상대적으로 해외 진출이 늦었던 농협은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 소액대출 법인인 농협파이낸스미얀마와 농협파이낸스캄보디아를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에는 사무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농협은행은 소액대출 사업 위주로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향후 현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핵심 역량인 '농업금융'을 앞세워 사업을 확장해나갈 방침이다. 김범근 기자 nova@

신한, 베트남 최대 36개 지점 보유 국민, 동남아 디지털뱅킹 개발중 하나, BIDV 외국인 전략 투자자로 우리, 모바일 비대면 영업 확대 농협, 소액대출 중심 사업 확장



글로벌 기술표준 전문인력양성사업

2020년도 표준대학원 신입생 모집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기술의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기회를 창출하는
미래 표준인재 양성

모집인원

석사 00명, 박사 00명(* 박사는 부산대학교만 모집)

주관기관

한국표준협회

참여대학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부산대학교, 중앙대학교(서울캠퍼스)

특징 및 특전

- 산학 연계 프로젝트 참여 및 기업 실무 교육
- 석·박사 학위 과정 참여 시 학생 인건비 지원
- 우수학생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기회 제공



NAVER

표준대학원



표준대학원 검색해주세요.



‘수주 훈풍’ 조선 3사, 감원 폭 줄었다

직원수 1년 전보다 2.7% 줄어
3년 만에 감원 1000명 밀돌아
연말 카타르발 대형 수주 기대
LNG 운반선 최대 100척 예상

조선업황 악화 탓에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을 단행하던 조선 3사가 감원 규모를 점점 줄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주량 증가와 대규모 LNG선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력 감축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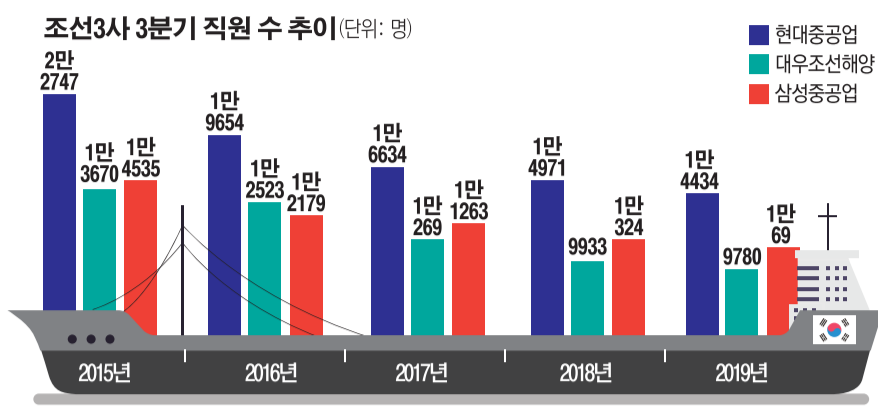
19일 금융감독원의 조선 3사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조선 빅3의 올 3분기 기준 전체 직원 수는 3만42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5명(2.7%) 감소했다. 3년 만에 1000명 이하의 감소 폭을 보였다.

회사별로는 대우조선해양의 인력 감소 폭이 가장 작았다. 대우조선해양 직원 수는 153명 줄어든 9780명이었다. 이어 삼성중공업은 255명 줄어든 1만69명이다. 정년퇴직 등의 자연 퇴사와 신규 채용 인원 감소가 맞물려 생긴 결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만4971명이던 직원 수가 1만4430여 명으로 537명 줄었다. 해양플랜트 사업의 일감 부족 현상이 지속하면서 이 부문에서만 400여 명의 인력이 줄었다.

최근 국내 조선 3사의 감원 폭은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악의 경영난을 겪던 2016년 4만4400여 명(조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등)이던 3사 직원 수는 2017년 3만8000여 명으로 쪼그라들었다. 2016년 수주량이 222만CGT로 곤두박질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졌고 1년 동안 무려 6200여 명이 회사를 떠난 것이다. 2018년에는 그 절반인 3000여 명이 줄어 3만5000여 명을 유지했다. 올해 감소 폭은 더 줄어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감원 축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라이벌 중국에 빼졌던 일감을 다시 가져오면서 수주량이 늘었고 연말 전후로 카타르발 발주 대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조선사는 올 10월 누적 기준 수주량 695만CGT(39%)를 기록하면서 611만CGT(35%)를 기록한 중국을 따돌렸다. 누계 수주액에서도 한국이 159억7000



만 달러로, 136억7000만 달러를 기록한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며 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자체가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수주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연말 전후로 발주가 예상되는 대규모 LNG프로젝트도 감원 축소 추세에 힘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 3사는 현재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인카타르페트롤리엄의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발주를 기다리고 있다.

발주 규모가 기본 40척에 옵션 40척을 넘어 최대 100척을 발주할 것으로 보인다.

신뢰도가 떨어진 중국을 제치고 국내 조선 3사가 싸늘이 수주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프랑스 석유회사 토탈이 추진하는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에도 사활을 걸고 있어 수주 성공 시 인력 감축 가능성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업황은 좋지 않지만, 앞으로 있을 대규모 발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감원 규모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승 기자 kisso@g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권오갑 입사 41년만에 현대중공업 회장 선임 대우조선 합병 등 리더십 기대

권오갑(사진) 현대중공업그룹 부회장이 회장으로 올라섰다. 현대중공업그룹은 19일 권오갑 부회장을 회장으로 승진 발표하는 등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 극복을 위해 주요 계열사 경영진을 대부분 유임했다.

이날 회장으로 선임된 권오갑 회장은 1978년 현대중공업 플랜트영업부로 입사해 런던지사, 학교재단 사무국장, 현대중공업스포츠 사장, 서울사무소장을 거쳐 2010년 현대오일뱅크 초대 사장을 지냈다.

현대오일뱅크 사장 시절 과감한 신규 투자와 조직문화 혁신, 전 직원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등의 리더십을 보이며 당시 영업이익 1300억 원대의 회사를 1조 원대 규모로 성장시켰다.

2014년에는 위기에 빠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및 그룹 기획실장으로 취임해 과감한 의사결정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비핵심 분야에 대한 사업재편은 물론, 자산매각을 비롯한 각종 개혁조치를 신속히 단행해 회사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어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현대로보틱스, 현대에너지솔루션 등 비(非)조선 사업을 분할해 독자경영의 기틀을 마련했고, 지주회사 체제 전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그룹의 변화와 혁신을 성공적으로 주도해 2018년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올 초에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합의해 한국 조선산업의 변화를 선두에서 이끌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 인수 등 그룹의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더욱 확고한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며 "그룹 최고 경영자로서 권오갑 회장이 그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혁관·남상훈·주원호·서유성·권오식 전무 등 5명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또 성현철 상무 등 15명은 전무로, 류홍렬 상무보 등 19명이 상무로 각각 승진했다. 조성현 부장 등 35명은 상무보로 신규 선임됐다. 김기승 기자 kisso@g

정의선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변모” 한달 만에 또 강조



정의선(오른쪽)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브라이언 켈프 조지아주 주지사가 기아차 미국 조지아 공장 기념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아차

기아차 美 조지아공장 10주년 현대차그룹의 미래 방향성 제시 車부터 개인 비행체까지 아울러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이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방향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달 서울 본사에서 직원들과 소통 이벤트(타운홀 미팅)를 통해 직접 전략을 공언한 지 한 달 만이다.

정 부회장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기아차 조지아 공장 10주년 기념식에 나서 “현대차그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업체로 변모해, 향후 자동차는 물론 개인용 비행체(PAV·Personal Air

Vehicle), 로봇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서울 본사에서 직원들과의 소통 이벤트를 통해 PAV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현대차그룹의 방향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그룹의 방향성이 확립된 만큼 본격적 추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정 부회장은 “현대차그룹은 고객 중심적 기업으로 더욱 발전해 전 세계 인류의 진보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우리의 기술은 인간의 삶을 더욱 자유롭게 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를 더욱 확산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아차 미국 조지아공장 10주년 행사에는 정의선 부회장, 브라이언 켈프(Brian Kemp) 조지아주 주지사, 드루 퍼거슨(Drew Ferguson) 연방 하원의원, 김영

준 주애틀랜타 총영사를 비롯해 현지 정관계 인사, 기아차 임직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아차 조지아 공장은 2006년 10월 기공식을 하고 3년 1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09년 11월 스펀토를 생산하며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중국, 유럽에 이어 건설된 기아차의 세 번째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핵심 기지 역할을 담당해 왔다. 가동 첫해인 2009년 1만5005대를 생산한 후, 2013년 누적 생산 100만 대를 넘어섰으며, 올해 9월 300만 대를 돌파했다.

정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조지아공장의 성공을 위해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관계자 여러분과 열정으로 함께해준 공장 임직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더 크고 화려해진 ‘더 뉴 그랜저’ 곡선 구간서 ‘수준급’ 자율주행

현대차, 신차 못잖은 부분변경 제네시스 G80과 같이 같이져
고속주행 시 외부소음은 단점

‘신차급 부분변경’. 현대차가 3년 만에 내놓은 더 뉴 그랜저를 설명하는 수식어다. 실제 마주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사진으로 접했던 2차원 그랜저는 눈앞의 3차원으로 다가오며 가슴팍을 짓누른다.

변화의 폭을 환관하게 넓힌 만큼, 더 뉴 그랜저는 부분변경보다 신차에 가깝다. 외관 디자인부터 과감하게 변했다. 보석 모양의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 라디에이터 그릴과 주간주행등이 서로 끊임없이 이어져 있다. 눈을 어디에 뒹아 할지 모를 만큼 디자인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하든 라이팅 램프 방식의 주간주행등은 그릴 일부로 보인다. 다만 시동

을 켜는 순간 새 모습으로 등장한다. 방향지시등도 그릴 가운데에 떠 있다.

예상 밖으로 덩치는 더 컸다. 길이와 너비, 축간거리(휠베이스)를 기존보다 60mm, 40mm, 10mm 늘렸다. 4990mm, 1875mm, 1470mm의 길이 X 너비 X 높이와 2885mm에 이르는 축간거리로 동급 최고 수준의 공간성을 확보했다. 제네시스 G80과 길이가 똑같다.

대시보드는 넓고 길게 뻗어 실내가 더 넓어 보이게 한다. 특히 같은 크기로 경계가 없이 놓인 클러스터와 디스플레이는 큼직한 12.3인치 화면이다.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도움을 준다.

시승은 경기 고양시부터 남양주시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진행됐다. 시승에서는 3.3 가솔린 모델의 최상위 트림 ‘캘리그래피’를 운전했다.

더 뉴 그랜저는 저속에서 소음과 진동 없이 미끄러지듯 움직인다. 특히 가벼운



현대차 '더 뉴 그랜저'는 외관부터 과감하게 변했다. 보석 모양의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 라디에이터 그릴과 주간주행등이 서로 끊임 없이 이어져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

스티어링 휠이 인상적이다. 부드럽게 조향되는 스티어링 휠 덕분에 섬세한 주행이 가능하다. 고속도로에 들어서 속도를 높여도 안정적으로 속도를 낸다. 3.3 가솔린 모델은 차세대 스마트스트림 엔진을 얹어 최대출력 290마력, 최대토크 35.0kg·m의 힘을 낸다. 다만 고속 주행 시 정숙성은 기대 이하이다. 시속 80km를 넘어 서면 꽤 거슬리는 외부 소음과 진동이 유

입된다. 자율주행 기능은 수준급이다. 곡선 도로에서도 스티어링 휠을 차선 안쪽으로 밀어넣는다. 자동차 키로 차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장치는 좁은 도심 주차 공간에서 유용하겠다. 3.3 가솔린의 판매가격은 기본 트림 3578만 원, 최상위 트림은 4349만 원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극장 광고효과 측정 솔루션 제일기획 국내 최초로 개발

제일기획은 극장 광고 효과를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4-스크린 통합 광고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4-스크린 통합 광고 솔루션’은 기존에 단편적으로 계산해온 극장 광고 효과를 ‘3-스크린’이라 불리는 TV, PC, 모바일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하고, 나아가 광고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스크린별 예산 배분으로 기업들의 효율적 광고 집행을 돕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제일기획은 연령대별 인구 대비 노출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기업, 브랜드가 일정 기간 극장 광고를 집행한 효과가 특정 TV 프로그램에 광고를 몇 회 집행한 효과와 같았는지 비교해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일기획이 ‘4-스크린 통합 광고 솔루션’을 활용해 연령별 광고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20대의 경우 극장 광고 집행만으로 전체의 30%에게 광고가 도달했으며 30대는 20%, 40-50대는 15%가량 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록 기자 syr@

“VR 공간서 제2의 삶”... SKT ‘5G 가상세계’ 만든다

가상세계 커뮤니티 ‘버추얼 소셜 월드’ 론칭

아바타 꾸미고 다른 이용자와 친목·게임 다양한 활동
페이스북과 파트너십... 카카오펀드와도 전략적 제휴
넥슨 게임 VR 개발 중... 내년 100만명 목표

SK텔레콤이 삶의 범위를 가상 공간으로 확장하는 ‘5G 가상 세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가상현실(VR) 생태계 확대를 위해 페이스북, 카카오펀드, 넥슨 등 글로벌 ICT·콘텐츠 기업과도 손잡았다.

19일 SK텔레콤은 5G VR 시대의 핵심 서비스인 ‘버추얼 소셜 월드’를 론칭했다. ‘버추얼 소셜 월드’는 다수의 VR 이용자들이 시공간을 초월한 ‘가상 세계’에서 커뮤니티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타인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서비스다. VR기기는 전 세계에 유행한 약 800만 대 이상, 2023년까지 누적 약 1억대 대 보급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VR 대중화에 앞서 ‘버추얼 소셜 월드’를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국내외로 사업 영토를 넓힌다. 아울러 △세계 대표 VR기기 ‘오culus(Oculus)’ 공식 출시 △카카오펀드와 협력 △넥슨 IP를 활용한 VR게임 △VR기기·콘텐츠를 올인 원으로 묶은 ‘오culusGo VR팩’ 출시 등

으로 5G 서비스 대공세에 나선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자사 VR 서비스 이용자를 올해 월 10만 명에서 내년 월 100만 명 규모로 10배 이상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낮 직장인, 밤 가상세계 DJ... ‘버추얼 소셜 월드’서 제2의 삶 ‘버추얼 소셜 월드’는 오culus나 기어VR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오culus 스토어 내 ‘점프 VR’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이용자들은 ‘버추얼 소셜 월드’에서 분신 역할을 하는 아바타의 머리 스타일, 눈코입, 복장 등을 꾸미고, 개인 공간인 ‘마이룸’에서 VR 영화를 보거나 동물을 키울 수 있다.

다른 이용자와는 마이룸 외 7개 테마의 가상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 이용자들은 테마룸에 모여 음성·문자 채팅으로 관심사를 나누며,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 친구를 맺고, 미니 게임을 함께 하는 등 다양한 액티비티도 가능하다.



SK텔레콤 모델들이 19일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다수의 VR 이용자들이 시공간을 초월한 ‘가상 세계’에서 타인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5G VR 서비스인 ‘버추얼 소셜 월드’를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은 국내외 이용자들이 시공간을 넘어 하나의 ‘버추얼 소셜 월드’에서 만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다국어 지원을 업데이트하고, 글로벌 이용자를 위한 클라우드 서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같은 시기에 별도의 VR기기 없이 스마트폰으로도 ‘버추얼 소셜 월드’에 접속이 가능해진다.

SK텔레콤은 ‘버추얼 소셜 월드’ 확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VR플랫폼 리더인 페이스북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VR기기 ‘오culus’를 19일 전격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모델은 스마트폰이나 PC가 필요 없는 독립형 HMD(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 ‘오culusGo’다. 그동안 국내 고객들은 ‘오culusGo’를 구입할 때 해외 배송이나 직구를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 모바일 T월드 앱이나 SK텔레콤 T월드 대리점 등을 통해 쉽게 구입하고 국내에서 AS를 받을 수 있다.

◇카카오펀드와 협력·넥슨과 VR게임 론칭...서비스·기술 협력 스타트업 지원=SK텔레콤은 대중소 게임 및 콘텐츠 개발사와 협력해 VR 서비스 개발을 확대하고,

한국 VR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도 함께 모색한다. SK텔레콤은 먼저 가상체험 서비스 개발사 ‘카카오 VX’와 VR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이번 제휴로 양사는 카카오펀드가 개발 중인 카카오펀드 IP를 활용한 VR게임 ‘프렌즈 VR월드’도 연내 공개하고, 판매를 SK텔레콤이 담당하기로 했다. 또한 SK텔레콤의 ‘버추얼 소셜 월드’에 카카오펀드와 연결되는 별도의 공간도 새롭게 마련한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게임사 ‘넥슨’의 인기게임 카트라이더, 크레이지아케이드, 버블파이터 캐릭터를 활용한 VR게임을 개발 중이다. 이용자들은 테니스, 양궁과 같은 다양한 미니 스포츠 게임을 1인칭 시점에서 즐길 수 있다.

스타트업 ‘마블러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AI 기반 가상현실 영어학습 서비스 ‘스피릿’의 업그레이드 버전도 출시한다. VR 기반 데이트, 입학심사, 비즈니스 미팅 등 100편 이상 콘텐츠와 AI 레벨 테스트 기능을 통해 효과적 개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점프VR’와 아바타, 3D렌더링 기술을 포함한 저작도구 ‘T리얼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내 개발사, 스타트업과 기술·서비스 협력을 강화한다. 헤커톤·공모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VR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훈 기자 yes@

“주52시간, 中企 근로자 임금 月 33만 원 줄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뒤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3만 원가량의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포함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문식 중소기업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한홍희 한신특수가공 부장 등이 참석했다.

노민선 위원은 토론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분석 및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노 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면 중소기업은 12만3000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해 총 5조9771억 원의 비용이 든다. 반면 직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3만4000원 줄어든다. 이로써 총임금 감소액은 2조6436억 원에 달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에 따른 부담액 5조

9771억 원에서 임금 감소액을 빼면 총 3조3335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노 위원은 “근로시간의 효과적 단축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주 68시간제에 기반한 정책, 마인드를 주 52시간제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중기중앙회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 생계형 투잡 속출할 것... 기업도 3조3000억 추가 비용 업계 “제도기간으로 한숨 돌렸지만 보완 입법 서둘러야”

특별법(가칭) 제정 △기술 및 혁신 노하우 전수 시스템 구축 △대기업 퇴직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혁신 컨설팅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형 계약학과 개설 촉진 △중소기업 근무와 인적자원 개발 간 연계 등을 제안했다.

이정 교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시행규칙 제9조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 등을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자연재해와 재난’에 준하는 사고 발생 때만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있어 매우 한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상품 개발이나 IT

, 소프트웨어 개발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수요가 불가피하게 집중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한시적 연장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충분한 제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

을 개정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서승원 부회장은 “정부에서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대책을 어제 내놔 중소기업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며 “다만, 근본 해법은 되기 어려운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 해결책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돼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기미가 없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김문식 위원장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중소기업의 기초체력이 바닥난 가운데 한 달 뒤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고질적인 인력난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고, 투 잡을 뛰는 근로자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저녁이 있는 삶, 고용 창출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시라도 빨리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기 기자 aaaa3469@



SK텔링크, 골프존과 함께 ‘골퍼 맞춤형 요금제’ 출시

‘골프대디 멤버십’ 무료 제공

SK텔링크가 스크린골프 전문 기업 골프존과 손잡고 골퍼를 좋아하는 고객들을 위해 ‘SK세븐모바일 골프존 제휴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골프존 제휴 요금제는 ‘골프존 5GB’, ‘골프존 3GB’ 등 2종으로, 모든 가입 고객에게 월 1만 원 상당의 ‘골프대디 멤버십’이 무료로 제공된다. 이 요금제는 상품 해지 시까지 평생 제공된다. ‘골프대디 멤버십’은 골프존이 만든 골퍼 맞춤형 유료 멤버십으로 골프존 이용권 증정, 샷분석, 스윙분석, 스크린·필드·골프용품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골프존 5GB’ 요금제는 부가세 포함 월 3만9600원에 데이터 5GB, 음성 200분, 문자 100건이 기본 제공되며, 데이터 사용이 적은 고객이라면 부가세 포함 월 3만3000원에 데이터 3GB, 음성 200분, 문자 100건을 기본 제공하는 ‘골프존 3GB’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제휴 요금제를 ‘SK세븐모바일’의 프리미엄 중급폰 브랜드 ‘바른폰S’와 단말 결합 가입 시 출고가 41만7000원의 특급 갤럭시S9를 할부원금 0원에 구매할 수 있다.

SK텔링크는 ‘골프존 제휴 요금제’ 출시를 기념해 12월 31일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 ‘골프존 제휴 요금제’ 2종에 가입한 고객 1000명에게 선착순으로 골프장, 스크린골프, 골프용품·의류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골프문화상품권 3만 원권을 증정한다.

이재훈 기자 yes@

정윤모 기보 이사장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 대상 연내 선정”

대상 기업에 총 1000억 지원 ‘소부장’ 강소기업 선정 마무리

기술보증기금이 올해 안에 예비 유니콘 기업 특별보증 지원 대상이 될 기업들을 선정해 총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보는 본 수출 규제에 대비해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곳을 육성하는 사업도 올해 안에 지원 대상 선정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정윤모(사진) 기보 이사장은 1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14개 정도의 예비 유니콘 기업을 가려내 기업당 최대 100억 원씩의 보증을 해 줄 방침”이라며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원 프로그램은 매출 1조 원 이상 벤처기업인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정 이사장은 예비 유니콘 지원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47개 기업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소·부·장 강소기업 100곳 선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향후 5년간 기업당 30개 사업에 최대 182억 원을 투입하는

집중 지원사업”이라며 “12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기업 보증지원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도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기보 예산이 한 해 만에 이렇게 증액되는 경우는 없었다며 “대부분의 증액분이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들에 대한 만기 연장 총당자금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매일 '뜨고' 남양 '지고'... 우유 라이벌 실적 희비

매일유업 전부문 성장에 3분기 매출 3504억 전년비 5% 쏙
남양유업, 갑질 논란·오너 리스크 등 이미지 추락 적자 전환

'유업계 라이벌'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의 3분기 실적 희비가 엇갈렸다.

매일유업은 RTD(Ready To Drink) 커피를 비롯한 유가공 제품 판매로 몸집을 불리는 데 성공했지만, 남양유업은 주력 제품의 부진으로 매출이 크게 위축되며 적자 전환했다.

매일유업은 출산을 저하에 따른 분유와 우유 시장의 정체라는 위기를 사업다각화로 넘어섰다. 매일유업의 RTD커피 브랜드의 컵 시장 점유율은 약 20%에 달하는 부동의 1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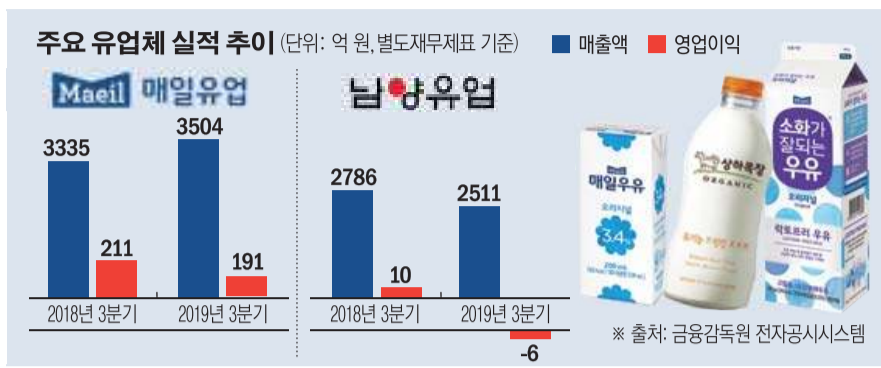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3분기 별도기준 매출액

3504억 원, 영업이익 191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211억 원) 대비 소폭 줄었으나 매출액은 전년(3335억 원)보다 5% 늘었다.

RTD커피와 발효유 등 제품 전반적으로 매출이 고르게 늘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매일유업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유가공 제품(매일우유·퓨어·카페라떼 등)의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은 8667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8143억 원) 대비 6.4% 증가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커피음료와 상하목장(유기농 우유), 아몬드브리즈와



같은 고수의 제품 매출 확대를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면서 "특히 멸균 형태 제품 판매를 통해 이커머스 및 창고형 마트 채널 비중을 늘리면서 소매 채널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남양유업도 영양 간식, 여성 전용 발효유, 중장년 전용 우유 등 꾸준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다각화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진 않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갑질 논란 이후 남양유업에 대한 불매운동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앞서 남양유업은 대리점 갑질 논란이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며 실적이 감소했고, 창업주 외손녀의 마약 사건 등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남양유업은 3분기 별도기준 매출액 2511억 원, 영업손실 6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유와 매출이 20%를 차지하는 분유 매출 감소가 뼈아팠다. 올해 3분기 누적기준 남양유업의 우유 매출액과 분유 매출액은 4079억 원과 161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매출액 우유 4265억 원, 분유 1722억 원보다 각각 100억 원 이상 감소한 수치다.

다만 회사 측은 실적에 대해 "전년 동기 대비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매출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원가를 개선 및 판매비 절감 등으로 경영 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들어온 겨울왕국 19일 서울시 송파구 롯데마트 잠실점 토이저러스에서 모델들이 '겨울왕국 2 완구'를 소개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영화 '겨울왕국2'의 개봉을 기념해 20일부터 토이저러스에서 관련 완구 행사를 연다. 사진제공 롯데마트

취향에 맞는 제품 추천하고 쇼핑 안내까지 백화점 인공지능 플랫폼 더 똑똑해졌다

백화점이 AI(인공지능)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백화점들은 그동안 물건의 배치를 알려주거나, 상품의 설명 등 단순 업무에 AI를 접목했던 것을 탈피해 고객과의 소통까지 가능토록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매일 축적되고 있는 방대한 양의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유형 '디지털 AI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입점 브랜드들이 고객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새로운 매출을 확보할 기회를 주고자 마련됐다.

내년 4월 데이터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앞으로 백화점 내 입점 브랜드들이 직접 영업 활동에 필요한 대상 고객을 선정하고, 문자 광고 혹은 DM(다이렉트 메일)을 발송할 수 있게 된다.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연결해 맞춤형 마케팅을 가능하게 해 준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공유형 '디지털 AI 플랫폼'으로 오프라인 매장과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엘리트 앱에서의 거래 및 상품 검색과 같은 행동 데이터 등 총 18개의 고객 연관 시스템을 종합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디지털 AI 플랫폼'은 고객에 맞춤형 상품을 제안하고, 입점 업체까지 연결시켜주는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터'로 거듭났다.

이는 롯데가 추진하고 있는 옴니채널 구축과 이커머스 경쟁력 강화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신동빈 회장은 올해 주요 과제를 '디지털 전환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으로 삼고, 조직의 빠른 디지털 전



19일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들이 AI 로봇 페퍼와 사진을 찍고 있다(왼쪽). 신세계백화점은 인공지능 상담사 'S봇'을 업그레이드해 음성 기능을 지원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사진제공 각사



롯데 '디지털 AI 플랫폼' 구축 신세계 'S봇' 음성 서비스 제공

환을 주문했다. 신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일부 활용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경영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5월 도입한 인공지능 상담사 'S봇'의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챗봇을 넘어 음성 지원으로 한 단계 진화에 나선 것.

기존 'S봇'은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한 메시지를 비롯해 네이버 검색 서비스인 '네이버톡톡'을 통해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달 22일부터는 AI스피커인 '구글홈'을 통해 음성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이 구글홈 AI스피커에 신세계백

화점 음성호출 후 궁금한 내용을 문의하면 신세계백화점 휴점일, 영업시간, 편의시설 등 주요 정보들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휴점일과 영업시간, 주차, 서비스 시설, VIP 클럽 안내 등이다.

향후 신세계백화점은 'S봇'에서 고객의 다양한 문의에 대해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정보 수준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고객의 상품 구매 이력은 물론 개인의 구매 패턴, 취향에 기반한 쇼핑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조우성 신세계백화점 디지털노베이션 상무는 "AI 챗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혁신으로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유통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하게 됐다"며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도를 정확히 파악해 정교한 답변을 제공하는 AI 컨택센터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

"GS25서 전동킥보드 충전하세요"

GS리테일·칼텍스, 라임 손잡고 모빌리티 서비스

GS리테일과 GS칼텍스가 글로벌 1위 전동킥보드 공유기업 라임(Lime)과 손잡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GS리테일과 GS칼텍스는 라임과 함께 GS25 편의점, GS파크2 주차장, GS칼텍스 주유소에서 전동킥보드 충전 서비스 제공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사업에 대한 다각도의 협업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 GS리테일, GS칼텍스, 라임은 21일과 28일, 다음 달 5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 강남구 GS타워에서 퍼스트라이드(First Ride) 행사를 열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사용법 안내 및 시승, 안전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GS리테일의 이번 제휴는 6월 국내 전동킥보드 공유 기업인 '고고씽'과의 제휴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GS리테일은 소매 점포망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해 각종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2016년부터 GS25와 GS수퍼마켓 55개 점포에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 설비를 설치해 운영 중이고 8월부터는 전국의 GS25를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요금을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한편, GS칼텍스는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주유소를 모빌리티 서비스 간 연계 지점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GS리테일·칼텍스가 세계 1위 전동킥보드 공유기업 '라임'과 손잡는다. 사진제공 GS칼텍스

GS칼텍스 주유소를 전동킥보드 충전 네트워크로 활용해 고객이 출발지에서 인근 주유소까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서 주유소에 주차된 공유 차량으로 갈아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등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진다.

GS칼텍스 관계자는 "미래형 주유소를 '모빌리티 & 로지스틱 허브'로 구축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주유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GS리테일과 함께한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계열사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너지 확대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선 기자 only@

KGC인삼공사 '120주년 창업에디션' 출시

KGC인삼공사는 120주년 창업기념일을 맞아 '홍삼정 창업에디션(사진)'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홍삼정 창업에디션'은 120년의 역사와 가치를 새긴 패키지에 정관장 대표 홍삼 제품인 '홍삼정(120g×3병)'을 담아 구성한 한정판 제품이다. 풍부한 양과 실속 있는 구성으로 선물용 또는 온 가족이 섭취하기에도 적합하다.

'정관장 홍삼정'은 KGC인삼공사의 노

하우와 기술로 6년간 홍삼의 유효성분을 최적의 조건으로 담겨 농축한 정관장 대표 제품이다. 홍삼 본연의 부드러운 맛과 향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KGC인삼공사는 창업기념일을 맞아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1일간 프로모션을 전국 정관장 매장에서 진행한다.

'홍삼달임액', '알파프로젝트', '홍삼정 농축캡슐' 등 주요 제품 구매 시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고객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관장 대표 홍삼 제품인 홍삼정을 실속 있게 구성했다"면서 "홍삼정 창업에디션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차액결제거래〉 대형증권사 'CFD' 출격 준비... 막판 변수는 '규제'

“적은 돈으로 큰 수익” 투자자 몰리며 하루 평균 거래액 300억
유안타 내년 상반기 서비스... NH투자·삼성·한국투자 저울질
DLF 사태 등 고위험상품 투자 손실 문제 불거져 제재 가능성

대형 증권사들이 CFD(차액결제거래)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다. 정부가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등 고위험상품 투자 손실 문제가 최근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이 CFD 관련 투자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3분기 분기보고서를 통해 향후 추진 중인 신규사업으로 CFD 서비스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NH

투자증권 관계자는 “CFD 서비스 출시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CFD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거래차액만 정산하는 형태로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을 내면 기초자산의 이전 없이 레버리지 매수, 공매도 등의 거래가 자유롭다. 국내에서는 전문투자자에 한해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CFD는 10~40%의 증거금만으로 매수가 가능해 최대 10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적절한 투자가 이뤄진다면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또 주식 보유 관련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점도 자산가의 이목을 끄는 대목이다. CFD에 투자할 경우 매매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나 소유권은 증권사에 있기 때문에 세금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적지 않은 수수료를 증권사에 내야 한다.

CFD는 교보증권이 2016년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서비스했고 6월 DB금융투자과 키움증권이 가세했다. 또 지난달엔 하나금융투자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8월까지 교보증권 등 세 곳의 CFD 하루 평균 거래액은 300억 원 이상이다.

후발주자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유안타증권은 내년 상반기 관련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NH투자증권 외에도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초대형 투자은행(IB)도 CFD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들어 증권사들이 CFD 서비스 도입에 앞다퉈 나서는 이유는 시장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2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이 완화돼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000만 원 이상이고, 연 소득 1억 원(부부 합산 1억5000만 원) 또는 순자산 5억 원(거주주택 제외, 부부 합산 가능) 이상이면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문투자자 수

는 1950명(지난해 말 기준)에서 15만~1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하고 있다. CFD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현재보다 90배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다만 높은 레버리지로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 금융당국은 2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가 전문투자자 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 책임을 묻는 내용을 감독규정에 추가할 전망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당장 21일부터 완화된 요건으로 개인 전문투자자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산철 기자 camus16@

“분자진단센터 해외 설립으로 성장 한계 극복”

기업탐방

랩지노믹스

中·베트남 현지기업 MOU 모색
열대 감염성 질환 진단 키트 갖춰
올 매출 238억... 흑자전환 기대

랩지노믹스가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분자진단센터 해외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국, 베트남 현지 기업과 조인트벤처, MOU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촘촘한 국내 규제와 협소한 진단시장 규모에 따른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다.

2002년 설립돼 2014년 코스닥에 상장한 랩지노믹스는 국내 최초로 분자진단 영역을 개척한 바이오기업이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275억 원, 영업손실 21억 원을 기록했다. 진단기술 기반인 NGS는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유전자의 범위가 넓고, 대량의 유전 정보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유전체 정보, 진료 기록, 생활습관, 인체자원 등을 고려한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다.

김명신 랩지노믹스 CTO(최고기술책임자)는 “과거에는 치료법이 경험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랩지노믹스의 NGS 진단은 과학적 개인 맞춤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주요 제품으로는 비침습적 신생아 발달장애 염색체 이상 질환 선별 검사인 ‘맘가드’, ‘양팡가드’, 암치료 진단검사 ‘캔서스캔’, 다이어트 건강관리 개인 유전자 검사 ‘제노팩 다이어트’ 등 총 9가지다.

‘양팡가드’는 600만 개가 넘는 신생아의 염기서열을 분석해 240여 개의 발달장애 질환과 연관된 염색체 이상을 검출하는 검사로 출시 이후 20개월 만에 검사 건수가 1만3000건을 넘었고, ‘캔서스캔’의 경우 2017년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범 급여사업에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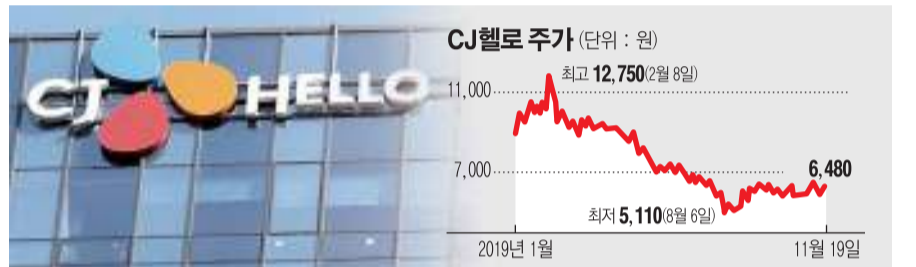
해외 진출을 위해 PCR(핵산증폭 방법)

기반 분자진단 키트도 활발히 개발 중이다. 뎅기열, 말라리아, Zika바이러스, 장티푸스 등 열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진단 키트 라인업이 갖춰진 상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해외 현지 검사센터(ICL) 설립이 목표다. 자체 개발 진단시스템, 진단제품 등을 현지 검사센터에 팔아 매출을 증대하는 구조다. 김 CTO는 “진단 시장 의학 관련된 전체 시장에서 미국이 50%가량을 차지하고, 한국은 채 1%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국내에는 아직 생소한 분야여서 규제도 많이 묶여 있다 보니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사업 쪽에 많이 눈을 돌렸다”고 말했다.

랩지노믹스는 올해 흑자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3분기 분기보고서 기준 랩지노믹스 누적 매출액은 237억6600만 원, 영업이익은 5억1400만 원이다. 개인유전자 검사인 제노팩 시리즈 판매 호조와 분자진단 및 NGS 부문 매출 비중 확대가 매출액 증대로 이어졌고, 개발비 부담이 다소 해소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노우리 기자 we1228@



LG유플러스, 인수 작업 9개월째 지연 CJ헬로 주가 ‘반토막’

실적 부진에 공정위 결론 유보 영향
2월 1만2750원에서 6480원으로

LG유플러스의 인수작업이 지연되면서 CJ헬로의 주가가 연초 신고가 대비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CJ헬로는 전 거래일 대비 2.37% 오른 6480원에 마감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52주 신고가(1만2750원)를 기록했던 2월 8일 대비 49.18% 하락한 수치다.

CJ헬로는 2분기 실적 부진한 데 이어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인수와 관련해 결론을 유보하겠다고 밝히면서 줄곧 내리막을 걸었다. 3분기 실적 역시 부진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3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14% 감소한 2734억 원, 영업이익은 80.40% 감소한 40억 원이다. 당기순손실은 28억 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주 공정위가 불가 상승률이 넘는 수신료 인상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부 승인을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주가는 되레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실적과 주가가 모두 부진한 데는 인수 작업의 연기가 주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2015~2016년 SKT의 인수 추진 과정에서 CJ헬로의 영업이 주춤하면서 2016년 영업이익이 430억 원으로 감소했다”며 “이후 인수가 무산되고 CJ헬로의 영업이 재개되면서 2017년 영업이익은 730억 원으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승인이 지연에 따라 올해 영업이익을 420억 원으로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CJ헬로의 피인수 결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주가도 회복하는 상황”이라며 “인수 승인이 완료돼 대주주가 변경되면 LG유플러스의 영업망을 활용하고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등 시너지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로서는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즈음이 두 기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시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대영 기자 kodae0@

적자 관리종목, 3분기 실적 놓고 ‘희비’

국순당·알톤스포츠 등
3분기 누적 영업손실에 추가 ‘뚝’
디지털유통·에이치엘비파워
흑자전환 성공... 상폐 위기 탈출

3분기 보고서 제출 마감을 기점으로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통상 3분기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할 경우, 4분기에 손실 이상으로 회생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5년 연속 영업적자 시 상장폐지 대상으로 지정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 4사업연도 연속 적자를 기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내추럴엔도텍, 알톤스포츠, 디지털유통, 유아이다, 국순당, 에이치엘비파워,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솔고바이오 등 8개 기업이다.

코스닥 시장 규정상 별도 재무제표 기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나오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오른다. 3

분기 누적 적자상태인 관리종목이 4분기에 누적된 영업손실을 상계하지 못하면, 내년 3월 발표될 올해 감사보고서 제출 직후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되는 셈이다.

백수오 전문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내추럴엔도텍은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이 44억50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억8500만 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적자폭이 늘어났다. 실적 발표 후 다음날 주가는 19% 하락하며 마감했다. 올해 회생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면서 투자 심리가 대폭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백세주 신화’로 유명한 국순당 역시 적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손실 40억8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억3800만 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적자가 커졌다. 주가 역시 전날 2700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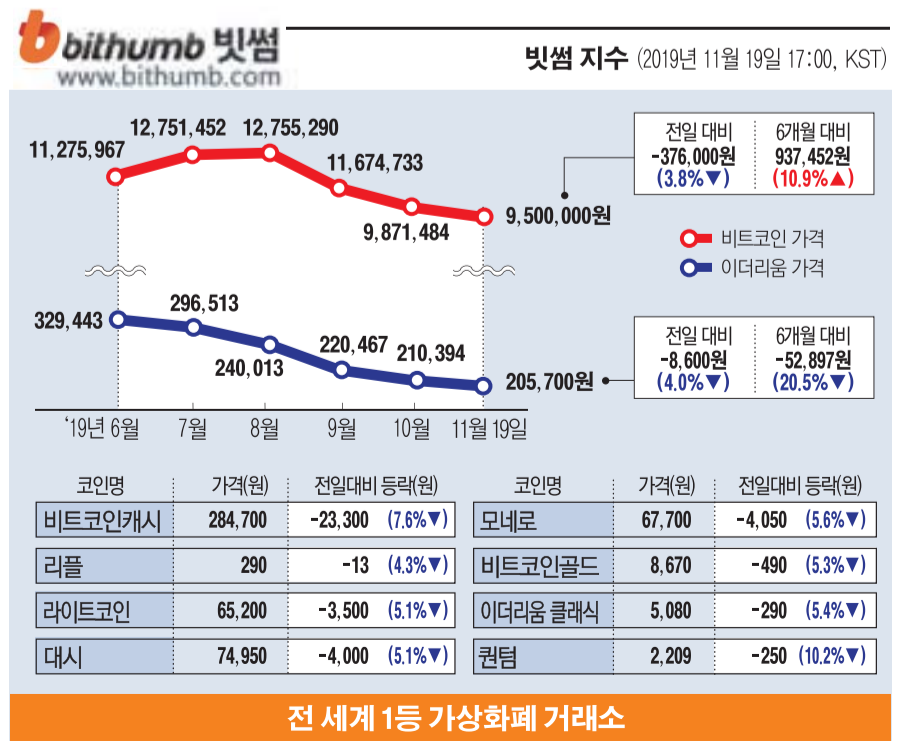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는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손실이 96억8400만 원을 기록했다 고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 3억6700만 원에서 대폭 적자전환한 셈이다. 상장폐지 지정과 가까운 실적 발표에

도 다음날 주가가 이상 급등하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기도 했다.

이어 알톤스포츠 역시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이 50억8700만 원을 기록하면서 연일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다. 솔고바이오 역시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손실 15억9700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손실이 28억5800만 원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나름 적자폭을 줄인 상황이다.

반면 3분기 극적으로 영업이익 시현에 성공한 상장사도 있다. 디지털유통은 3분기에 누적 기준으로 56억8400만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2억5400만 원의 영업손실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실적 발표 당일 주가가 장중 20% 가까이 급등한 이 유도 상장폐지 지정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에이치엘비파워 역시 3분기 누적 기준 29억3700만 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흑자전환했다고 공시했다. 한편 유아이다는 아직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지디 인수로 인해 제출기한이 15일 연장됐다. 이정희 기자 ljh@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밥캣이 할 수 없다면 아무도 할 수 없다

누구도 갖지 못한 기술력으로
아무도 가지 못한 길을 갑니다

소형건설장비의 Global No1. 밥캣



Bobcat is a Doosan Company. Doosan is a global leader in construction equipment, power & water solutions, engines, and engineering proudly serving customers and communities for more than a century. | Bobcat and the Bobcat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Bobcat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and various other countries. ©2018 Bobcat Company. All Rights Reserved.



“2억~3억대로 내 집 마련”... 신혼희망타운 흥행 성공

하남 감일·고양 지족·남양주 별내 1092가구 청약 마감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신혼희망타운에도 청약 온기가 돌고 있다. 비싼 분양가로 민간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내 집 마련 기회를 얻기 어려워진 만큼 공공분양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수요가 많아진 것이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오르며 관심

감일 55㎡ 경쟁률 '21.1:1' 최고
입지·교통·환경 모두 좋고

민간 특별공급보다 가격 매력적
가점 낮은 신혼 위해 공급 늘려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경기도 하남 감일·고양 지족·남양주 별내 지구 신혼희망타운 청약 결과 미달없이 모두 마감됐다. 지구별 평균 청약경쟁률은 각각 14.05대 1, 5.9대 1, 10대 1로 집계

됐다. 최고 경쟁률은 하남 감일지구(55㎡ A 타입)에서 나온 21.1대 1이었다.

이들 3개 지구 신혼희망타운에선 1092호(행복주택 제외)가 분양됐다. 1000가구가 넘는 물량이 한 번에 쏟아졌는데도 청약이 마감된 것은 입지·교통·환경 등에서 분양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경기도 평택 고덕지구에서 나온 신혼희망타운이 청약 미달했을 때 주요 원인으로 입지가 좋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LH는 3개 지구 모두 지하철과 고속도로 등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지구 내 초·중·고등학교가 가깝게 있는 것이 신혼부부에겐 이점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민간아파트 분양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분양가격이 높아지는 만큼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으로 쏠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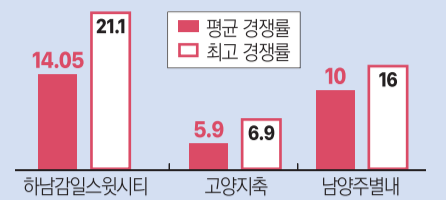
민영아파트 청약에도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은 있다. 자격 조건도 신혼희망타운과 거의 같다.



신혼희망타운 연내 공급 계획
(공급 물량 미정, 공급 일정 변경 가능)

- 11월 시흥 장현, 아산 탕정, 부산 기장, 완주 삼봉
- 12월 수서역세권, 파주(와동·운정3), 화성 동탄, 의정부 고산, 행정중심복합도시, 양산 사송

택지별 신혼희망타운 접수 평균 경쟁률



민영아파트 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을 보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한부모가족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등이다.

문제는 분양가격이다. 민간 분양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 적용되는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이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9억 원 초과 주택은 제외된다.

서울에서는 분양가 9억 원을 웃도는 아파트가 연이어 나와 특별공급을 노리기 힘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특별공급 분양 물량의 분양가격도 4억~5억 원대다.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격이 2억~3억 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민간분양보다 공공분양이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에 나온 신혼희망타운 지구별 분양 가격은 △하남감일 3억700만~3억8600만 원 △고양 지족 2억9600만~3억7400만 원 △남양주 별내지구 2억4700만~3억13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신혼희망타운은 청약가점이 낮아 민간 분양시장에서는 불리한 신혼부부에게 매력적인 내 집 마련 대안 상품으로 볼 수 있

다”며 “분양가격이 낮은 이점을 갖춘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연내에 공급할 예정인 신혼희망타운은 △11월 시흥 장현·아산 탕정·부산 기장·완주 삼봉 △12월 수서역세권·파주(와동·운정3)·화성 동탄·의정부 고산·행정중심복합도시·양산 사송지구 등이다.

LH 관계자는 “예정된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물량은 미정이고,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오후 5시에 제공하는 5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신월시영 재건축 시동... 예비안전진단 신청

주민 15% 동의... 집값 벌써 들쭉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시영 아파트가 예비안전진단 신청에 나서며 재건축 사업 추진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아직 초기 사업 단계에도 진입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벌써부터 재건축 기대감에 꿈틀대는 모습이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월시영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추진위원회는 전일 예비안전진단(현장조사)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서 접수를 마쳤으며, 이번 주 안에 양천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주체가 안전진단을 시행하려면 주민 10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신월시영 아파트는 주민 동의를 15.35%를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 이후에는 구청의 현장실사(예비안전진단), 안전진단 업체와의 계약, 안전진단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양천구 관계자는 “만약 이번 주 내로 동의서가 접수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예비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진단 결과는 진행 사항을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월시영 아파트는 1988년에 건립돼 재건축 연한(30년)을 이미 넘겼다. 이 아파트는 최고 12층, 20개동, 총 2256가구로

신월시영 아파트 위치도



구성돼 있다.

이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추진위원회 측은 예비안전진단을 시작으로 재건축사업 추진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고 있으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인 만큼 사업 진행에는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으로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보고 있다.

이에 이 아파트 매매가는 요즘 상승 분위기다. 예비안전진단 신청에 나선다는 이야기가 시장에 돌아 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

신월동 D공인중개소 대표는 “재건축 기대감 때문인지 매물이 확 줄었다”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4억 원대였던 전용 84.98㎡짜리 아파트가 최근 5억 원대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SULFATE(황산염)·함성색소·인공향
함성방부제·실리콘오일

5
무첨가

Pure of Love.

내 아이 만큼은
깨끗하게 사랑하세요

좋은 것을 먹는 것 만큼
좋은 상푸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연의 착한 성분만을 담은 오무오무로
건강한 반려생활을 시작하세요

Pure of Love.
omumom
www.omumom.co.kr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땀 과태료 3000만원

‘시장 교란 행위’ 신고자 포상도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허위로 부동산 거래 해제·무효·취소 신고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과태료를 3000만 원 이상 부과하도록 했다. 거래대금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대금 액수에 따라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 역시 거래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10만~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장 교란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범위도 확대된다. 신고를 장려해 시장 교란 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자전거래(거래량이나 시세를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계약을 꾸며 신고하는 행위)나 허위 해제를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국민銀, 성동조선에 13억 돌려줘야”

“집값 너무 올라...보유세 도입해야”

재판부 “채권 이전 알면서 약정이자 받아... 악의의 수익자”

KB국민은행이 성동조선해양의 채권매수 청구권 행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받은 금융비용 약 13억 원을 돌려주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성동조선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이 성동조선에 12억9992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확정됐다.

2011년 9월 국민은행은 성동조선에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찬성한 금융기관(찬성 채권자)을 상대로 채권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다. 당시 국민은행이 매수청구한 채권은 기업일반자금대출채권, 선수금환급보증(RG)구상금채권, 파생계약에 따른 채권 등 2333억 원 규모다.

성동조선은 자율협약 주관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과 채권매수 청구권 행사에 대

해 협의하던 국민은행에 채권 관련 금융비용을 지급했다. 기업일반자금대출채권의 약정이자, 연체이자와 RG구상금채권 거래 보증수수료, 파생계약 관련 채권 중 10건의 파생계약 연장비용 등 25억 원에 달했다.

성동조선은 2016년 “채권매수 청구권 행사일인 2011년 9월 7일을 기준으로 국민은행의 모든 채권이 협의회로 이전됐으므로, 행사일 이후의 금융비용은 협의회에 지급돼야 한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은행 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은 채권매수 청구권의 행사로 기업일반자금대출채권이 찬성채권자들에게 이전됐음을 알면서도 성동조선으로부터 금융비용(약정이자·연체이자)을 수령한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권매수 청구권 행사 이후로 국민은행은 더이상 기업일반자금대출채권의 채권자가 아니고, 성동조선으로부터 금융비용을 받을 법률상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RG구상금채권, 파생계약에 따른 채권 등과 관련한 금융비용 반환 청구는 “매수청구 대상 채권과 계약 당사자 지위 이전은 별개의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권매수 청구권 행사로 국민은행의 RG계약상 지위 전제와 파생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전제가 넘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RG 관련 금융비용은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받는 보증수수료, 파생계약 관련 금융비용은 10건의 파생계약을 연장하는 대가로 받는 비용으로서 금전채권에 대한 약정이자나 연체이자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봤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박원순 시장 “부동산 안정에 정부 개입 필요” 주장

박원순(사진) 서울 시장이 “어느 국가나 부동산 가격 안정에 정부가 개입한다”며 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재개발·재건축 계획에 대해 “워낙 예민한 지역”이라며 “진행 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집값이 올라 불평등 문제,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며 “기본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도입되고 공공임대주택이 더 공급돼 이런 문제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아니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이 의원은 “많은 낡은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모두 첫 단계인 정비구역 단계에서 정지돼 있다”며 “이렇게 장기 지연시키면 녹물이 나오고 분양가 상한제, 일몰제 등 주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박 시장은 19일 오전 열린 서울시의회 제 290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재개발·재건축 계획과 관련한 이석주 의원(자유한국당) 질문에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부동산 가격은 시장(市場)에 맡겨야 한다”고 언급하자 박 시장은 “시장(市長)에 맡기라는 것은 저한테 맡기라는 것 아니냐”고 받아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잠실, 여의도, 압구정 등 주요

법원 “대리운전 기사도 근로자”

“종속적 관계·지휘 감독 존재”

대리운전 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서정현 부장판사)는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 업체 2곳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김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하는 손오공과 친구넷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기사를 배정해 왔다. 지난해 12월 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대리운전을 하던 기사 3명 중 한 명은 부산대리

운전산업노조를 설립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뒤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손오공 등은 교섭을 거부하고 올해 2월 대리운전기사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리운전기사들이 손오공과 친구넷에 종속적으로 사용되는 관계에 있고,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대리운전 1회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점, 대리운전 업체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점, 업체가 운전자들에게 복장 착용이나 교육의무 부과, 업무 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점에서 지휘·감독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조세포탈’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조세포탈 의혹을 받는 조현범(사진)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19일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한국타이어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1월 국세청은 한국타이어의 탈세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강행하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최종 교섭 결렬을 알린 19일 오후 서울의 한 코레일 차량기지에 정차해 있는 열차들이 보이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는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뉴시스

BRAVO My Life

it's time for tea

재미

공감

행복

BRAVO My Life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짹짹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짹짹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짹짹 TV)

구독 문의 (02) 799-2680

세 차례 연기된 '이stanbul' 업그레이드 12월 4일 예정

이더리움 '담달 코인' 오명 벗을까

김우람의 가상화폐 스토리텔링

가상화폐(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의 다음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stanbul'이 12월 4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이미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문제로 여러 번이나 연기된 이후라 이번엔 제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담달 코인'의 오명 = 사실 이stanbul 업그레이드는 9월 4일 적용 예정이던 이더리움개선제안(EIP) 중 일부가 문제있다고 판단하고 10월 초로 미뤄진 후, 다시 11월, 12월로 연기됐습니다.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10월 연간 최대 행사인 '데브콘5(Devcon5)' 전후로 이stanbul 업그레이드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연기됐죠.

이더리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연기됐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지켜보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에는 업그레이드가 미뤄지면, 이더리움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떠들썩했지만, 지금은 한두 달 연기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더리움이나 블록체인의 본질은 아니지만 어느 IT분야든 개발 일정이 한두 차례 수정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번 연기가 일상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은 지난해 11월에도 콘스탄티노플 업그레이드가 연기돼 올해 2월로 미뤄졌죠. 이더리움이 처음 나올 때도 수차례 연기하면서 커뮤니티가 속앓이를 했다고 합니다.

◇일정 연기의 흑독한 덩어리 '발행량' = 이stanbul 업그레이드에는 새로운 암호화 기술과 전송 수수료를 최적화하기 위한 기능, 보안성 향상 등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개발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나, 디앱(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 사용자는 큰 변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이 몇 년간 연기되면서 사용자들이 알게 모르게 발생한 피해가 있죠. 발행량이 최초 예상치보다 초과되고 있다는 겁니다.



9월 4일 적용하려다 잇따라 연기 속앓이 투자자, 이젠 무덤덤

일정 지연되며 생산량 조절도 차질 860만여 개 초과 발행 희소성 줄어

내년 1분기 '이더리움 2.0' 업데이트 채굴 방식 1~2년 내 '지분증명' 전환

이더리움은 처음 백서상 약 1억 이더(Ether)에 근접한 만큼 발행 후 연간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빙하기(채굴이 불가능한 상태)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미 2017년 빙하기가 왔어야 했다는 것이죠.

2017년 예정했던 지분증명(PoS)과 다른 업데이트가 미뤄지면서 빙하기도 함께 연기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1억860만여 이더(ETH)로 860만여 개가 초과 발행됐습니다. 코인의 희소성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좋을 투자자는 없겠죠. 다만 블록 보상을 꾸준히 낮추면서 커뮤니티의 불만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0'은 내년 1분기 = 이stanbul 업

그레이드 다음 일정인 '이더리움 2.0'은 내년 1분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 개발자 대니 라이언은 최근 이더리움 2.0과 관련된 다른 개발과 함께 새로운 샤딩 제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했습니다. 라이언은 샤딩 체인 수가 1024개에서 64개로 감소하면 체인의 계산량은 감소할 수 있지만, 데이터 가용성 측면에서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더리움 2.0의 '0단계'가 1월 3일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라이언은 1월은 이르다며 1분기 내 적용을 예상했습니다.

이더리움 2.0이 시작되면, 서서히 발행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채굴 방식인 작업증명(POW)과 향후 전환될 지분증명(POS)이 1~2년간 공존한 후, 완전히 지분증명 방식으로 바뀔 예정인데요.

지분증명 방식에선 채굴에 막대한 전기와 고 사양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상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스틴 드레이크 이더리움 재단 연구원은 지금의 10분의 1 수준으로 발행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전송수수료를 소각하는 업그레이드(EIP-1559)도 계획 중입니다. hura@

시장 이모저모

이더리움 기반 가치고정형 프로젝트 메이커다오가 이더리움을 제외한 다른 코인을 담보로 받기 시작했다.



메이커다오 '다이' 다중 담보 지원 시작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가치고정형) 코인 프로젝트 메이커다오가 18일 이더리움 외에 자산도 담보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더리움 외에 가상화폐 연동 웹브라우저인 브레이브가 발행한 베이직 어텐션 토큰(BAT)이 달러 코인 '다이(DAI)' 발행을 위한 담보 목록에 추가됐다. '다중 담보 다이(MCD)'는 '다이 예치 보상 비율(DSR)'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다이를 특정 스마트 컨트랙트에 예치하면 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 현재 이자율은 2%대다. 메이커다오는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담보로 잡고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인 다이(DAI)를 발행하는 프로젝트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비트코인 자동입출금기' 6000대 돌파

전 세계에 설치된 비트코인 ATM(자동입출금기)의 수가 6000대를 돌파했다. 이 중 60% 이상이 미국에 자리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17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온라인 정보 제공업체 코인ATM레이더의 정보를 인용해 전 세계 비트코인 ATM 개수가 6004대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비트코인 ATM의 4분의 3 이상이 북아메리카에 설치됐다. 유럽은 약 20%, 아시아는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비트코인 ATM 중 65%인 3924대가 미국에 설치됐다. 이달에만 미국에서 108대의 ATM이 설치됐다. 하루 평균 11건이 설치된 것이다.

美 코인베이스, 직불카드 이용 범위 확대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자사 직불카드 서비스로 유럽 10개국, 가상화폐 5종을 추가 지원해 이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코인베이스 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영국 대표 지사 페로즈는 성명을 통해 "자사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암호화폐 수가 두 배 이상 늘고, 지원 국가도 10곳 더 추가됐다"며 "암호화폐 투자 기능뿐만 아니라 유틸리티 기능도 강화시키기 위해 힘쓸 것"이라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직불카드로 결제 가능한 암호화폐 옵션에 리플(XRP), 베이직어텐션토큰(BAT), 어거(REP), 제로엑스(ZRX), 스텔라(XLM)를 추가했다. 김우람 기자 hura@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바이로봇
APT Shield 2.0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바이로봇 7.0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을지로 238 (에일빌딩)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두드림스페이스에서
청년의 꿈과 열정을
키워드립니다.

“청년창업의 꿈이
꿈에 끝나지 않도록”

신한은행이 「창업은행」이 되어드립니다

신한은행의 차별화된 일자리 지원 플랫폼-

신한두드림스페이스에서

청년 창업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신한의 따뜻한 금융이 청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신한 **두드림** 스페이스 | **창업교육**

팀 프로젝트와 맞춤 코칭을 통해 창업인재를 육성하는 '디지털라이프스쿨'과
영상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두드림 크리에이터 교육'을 진행합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730명이 교육이수를 통해 자신의 꿈과 열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가정·육아 완벽하진 못했지만, 자녀 롤모델 역할 자부”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받은 정신영 삼성전자 연구원

반도체 엔지니어로 25년...시스템 반도체 수율 개선 앞장
“아이들에 근면·성실,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고방식 전해줘”

“25년간 여성 엔지니어로 생활하면서 가정과 육아에 완벽하진 못했던 점도 있었겠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저의 근면 성실함과 사회에서 필요한 사고방식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롤 모델의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Foundry) 사업부 제품기술팀 정신영(사진) 연구원은 20년 이상 반도체 외길을 걸은 여성 반도체 전문가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칩 등 시스템 반도체 칩의 개발 및 생산 단계에서 웨이퍼 레벨(Wafer-level) 평가·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반도체 공정의 시작인 신규 공정 개발부터 고객에게 전달될 시료 분석까지 전 영역의 부서와 협업하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정 연구원은 8일 ‘시스템 반도체 칩의 전기적 빅데이터를 이용한 비파괴 수율 분석

시스템’ 개발로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여성 엔지니어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국가경쟁력 및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 엔지니어를 포상하는 시상식이다. 2002년 시작된 이래로 매달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문 각 1명씩 산업 현장의 우수 기술자를 선정하고 있다.

정 연구원에게 상을 안긴 시스템은 로직 칩 테스트 중에 생성되는 전기적 데이터를 이용해 비파괴 방식으로 칩의 불량 원인을 분석하는 수율 분석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겹겹이 쌓인 칩을 단면·평면으로 쪼개서 불량을 검사해야 했다. 반면, 비파괴 방식은 칩을 쪼개지 않고 전기적 특성만으로 불량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시간을 줄이고 엔지니어의 노고도 줄일 수 있다.



정 연구원은 “기존에는 생산 중인 웨이퍼를 샘플링해 파괴 분석을 통해 불량 등을 검출하다 보니 웨이퍼의 샘플링 오류나 불량 분석 소요시간이 길다는 이슈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 시스템은 기존 수율 분석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획기적인 로직 칩 수율 분석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2015년부터 연구·개발을 시작했다. 개발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선행 공정을 개발·양산하는 과정에서 수율이 떨어졌을 때 원인 공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마다 원인 공정을 찾고 수정하며 수율을 다시 개선했다. 그는 “수율 개선에 도움이 됐을 때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이러한 경험은 다양한 분석 방법을 개발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이번 수상의 영광을 동료와 가족에게 돌렸다. 그는 “저희 팀 구성원들이 모두 유연한 사고와 뛰어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연구원의 남편은 시상 후 무대에 올라 “ 그동안 바쁜 모습을 보면서 잔소리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엔지니어로서 상을 받는 모습을 보니 기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동료 그리고 반려자로서 함께 노력하고 응원하며 더 큰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돕겠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권태성 기자 tskwon@

후공정장비 세계점유 1위
김민현 한미반도체 사장
‘중견 기업인의 날’ 산업포장



김민현(사진 오른쪽) 한미반도체 사장이 반도체 후공정 장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5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에서는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선도한 우수 중견기업인 24명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적극적인 시장 개척을 통해 반도체 후공정 장비(비전 플레이스먼트)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특히 부품 공급업체 등 협력업체에 대한 모든 결제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상생협력 실천에 앞장선 김민현 한미반도체 사장은 산업포장을 받았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사진 연합뉴스

스마트폰 배터리 화재 규명
조원서 산업기술시험원 본부장
‘제품안전의 날’ 동탑산업훈장

스마트폰 배터리 발화 사고의 원인을 밝혀 배터리 안전성을 높인 조원서(사진)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본부장 이 동탑산업훈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9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품안전 활동을 통해 국민안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유공단체에 45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스마트폰 배터리 발화사고 원인 규명을 통한 배터리 안전성 향상, 국내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 인프라 구축으로 제품 안전성 강화에 기여한 조원서 KTL 본부장에게 돌아갔다.

무보, 핀테크 접목 로봇사원 채용
‘쉬워봇’·‘워라봇’으로 이름 지어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사진 왼쪽 두 번째)가 로봇 사원을 채용했다. 단순 반복 업무는 로봇이 하고, 직원은 보험 심사과 고객 상담에 집중해 업무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무보는 19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최신 사무용 로봇 기술 도입에 따른 ‘로봇 사원명 공모전 시상식 및 로봇 사원증 수여식’을 열었다. 로봇 사원은 온라인에서 정보를 검색한 후 데이터 입력 등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인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술을 탑재했다.

로봇 사원명으로는 ‘쉬워봇’과 ‘워라봇’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쉬워봇은 고객이 무역보험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워라봇은 직원들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워라벨(Work-Life Balance)’을 추구할 수 있게 돕는다는 의미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3년 만에 호암 추모식 찾은 이재용 “사업보국 뜻 기리자”

이재현 회장, 이른 시간 별도 참배...CJ 인재원서 제사 진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호암 이병철 선대 회장의 32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추모식에서 “선대 회장님의 사업보국 이념을 기려 우리 사회와 나라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사업보국은 기업을 통해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뜻으로 이병철 선대 회장의 창업 정신이다.

삼성은 이날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이병철 선대 회장 32주기 추모식을 엄수했다. 추모식에는 이 부회장과 그의 어머니인 홍라희 전 리움 관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성 일가뿐만 아니라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 등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단도 참석했다.

이 부회장이 추모식에 참석한 것은 3년 만의 일이다. 작년에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추모식 전주 주말에 미리 선영을 찾아 참배했다. 재작년에는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 수감돼 불참했다.

이 부회장은 추도식 직후 오전 11시 30분께부터 삼성인력개발원 호암관에서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단 50여 명과 식사를 함께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CJ그룹은 이재용 부회장 총수 일가보다 앞선 오전 9시께 선영을 찾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내외를 비롯해 자녀인 이경후 CJENM 상무,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등이 참석했



19일 오전 경기 용인시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린 삼성그룹 창업주 호암 이병철 선대 회장의 32주기 추도식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참석하고 있다. 뉴스

다. 이날 오후 6시께에는 서울 중구 필동 CJ 인재원에서 이재현 회장을 제주(祭主)로 하는 제사가 진행됐다.

신세계그룹에서는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 강희석 이마트 대표 등 계열사 사장

단 이날 오후 선영을 찾았다. 정용진 부회장, 정유경 총괄사장 등 신세계 총수 일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추모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몽블랑 문화예술 후원자상

현대카드는 19일 정태영(사진 가운데) 부회장이 제28회 한국 ‘몽블랑 문화예술 후원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몽블랑 문화예술 후원자상은 세계적 상표 몽블랑이 매년 세계 각국에서 국가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해 온 후원자들을 선

정해 수상한다. 정 부회장은 2006년 뉴욕 현대미술관(모마)과 현대카드 파트너십 체결 이후 많은 전시를 후원했다. 또 국내 디자이너들의 모마 진출을 지원하고, 모마 한국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내 예술가들과 관계자들의 해외 진출을 지

원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상패와 문화예술 후원금 1만5000유로(약 1940만 원), 수상자를 위해 특별 제작된 펜을 수상했다. 정 부회장은 부상으로 받은 문화예술 후원금을 국내 대표 예술가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인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승진 △네트워크정책실장 이태희
- ◆조달청 ◇과장급 직위 승진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장 김남호 ◇서기관 승진 △융복합상품구매담당관실 이영호
- ◆현대중공업그룹 [한국조선해양] ◇부사장 승진 △주원호 ◇상무부 신규선임 △박명식 [현대중공업] ◇부사장 승진 △김형관·남상훈 ◇전무 승진 △성현철·박문영·류창열 ◇상무 승진 △류홍렬·이현호·이윤식·변정우·김태진·김명환·박중운·남상철 ◇상무부 신규선임 △조성현·윤희호·이종곤·이은석·김기주·강민호·성석일·김정배·정창화·이경섭·김용근 [현대미포조선] ◇전무 승진 △이사국·김송학 ◇상무 승진 △우태주·윤종홍 ◇상무부 신규선임 △이준우·강태영 [현대삼호중공업] ◇상무부 신

- 규선임 △김태문·김영환·이준혁·김중구·심학무 [현대건설기계/코어모션] ◇전무 승진 △문재영·조승환·양경선·김상용 ◇상무 승진 △김종우·박정환·한재호·이원태 ◇상무부 신규선임 △나홍석·이재욱·정명호 [현대오일뱅크] ◇전무 승진 △이용대·김민호·김오영·고영규·박기철 ◇상무 승진 △이승호·권기우·조휘준·조현철 ◇상무부 신규선임 △형성원·윤중석·최기화·임평순·임종인·강동순·박상조 [현대케미칼] ◇상무 승진 △조남수 [현대글로벌서비스] ◇상무부 신규선임 △이동원·안성기 [현대타워시스템] ◇부사장 승진 △권오식 ◇상무부 신규선임 △함수용·이경모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 승진 △서유성 [현대에너지솔루션] ◇전무 승진 △김진수 ◇상무부 신규선임 △이형내 [현대E&T] ◇상무부 신규선임 △김정환
- ◆미래에셋대우 ◇총괄 및 부문대표 △WM총괄(내정) 이상걸 △경영지원부문대

- 표 민경부 ◇준법감사인 △준법감사인 강길환 ◇혁신추진단 △혁신추진단 허선호 △혁신추진단 박준우(내정) ◇본부장 △강북지역본부장 배왕섭 △강서지역본부장 채수환 △경인지역본부장 남미옥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고재상 △호남충청지역본부장 박숙경 △글로벌별자산업본부장 김성주 △고객자산운용본부장 구용욱 ◇센터장 △투자센터여의도WM투자센터장 김을규 △투자센터판교WM투자센터장 이종원 △리서치센터장 서철수

부음

- ▲김광자 씨 별세, 나봉규·형규(대한전선 사장)·혜경 씨 모친상, 김강현 씨 장모상 = 18일, 광주 국민장례문화원 황궁 201호, 발인 20일 오전 8시, 062-606-4000
- ▲김백수 씨 별세, 김희재(대신증권 자산리서치부 팀장) 씨 부친상 = 19일, 서울

-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305호, 발인 21일 오전 7시 30분, 02-2225-1004
- ▲이정호 씨 별세, 송연석(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씨 장모상 = 19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특13호실, 발인 21일 오전 7시, 02-2258-5940
- ▲윤순원 씨 별세, 이만영(일신세무회 감사사무소 대표)·종열(전 미국 LA총영사관 정무·경제영사) 씨 모친상, 이정란(아현중 교사)·이재숙 씨 시모상 = 19일,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2층 특1호, 발인 21일 오전 11시, 063-250-1444
- ▲장하순 씨 별세, 신태호(전 대우자동차 이사)·연호(재미)·연숙(전 한겨레신문 편집부국장)·동호(재미)·연미 씨 모친상, 이은경·배진나 씨 시모상, 김정호(재미)·인평수(한올로보틱스 회장)·조용수(나스테크 감사) 씨 장모상 = 19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0호, 발인 21일 오전 7시 20분, 02-3010-2240

일본은 지금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정치학

현재 아베 총리 주변에서는 12월에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해 조기 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첫째, 태풍에 의한 피해 복구를 아베 내각이 외면한 사실, 둘째는 10월 1일부터 소비세를 2%포인트 인상한 영향, 셋째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관광산업의 피해가 큰 홋카이도, 규슈, 오키나와, 쓰시마 그리고 일부 도카이 지방 등에서의 민심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일본에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현지 여론의 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중의원(하원) 선거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우선 요미우리신문이 11월 15~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신조 내각 지지율이 49%로 나타났다. 이것은 요미우리의 10월 조사 결과인 55%에서 6%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달보다 2%포인트 높아진 36%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인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대폭 하락한 만큼 진보 성향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하면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지지율의 대폭 하락 원인으로서는 아베 총리 주치의 '벚꽃을 보는 모임'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 중 45%가 '벚꽃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스캔들 등에 '아베 총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는데 이는 10월 조사보다 10%포인트나 상승한 수치다.

최근 아베 총리는 실책이 많다. 9월 개각을 단행했는데 그 후 약 한 달 반 사이에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경제산업상과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법무성 장관이 비리로 줄줄이 사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에 대해서 "두 사람을 임명한 아베 총리의 책임이 크다"고 대답한 사람이 52%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비율 42%를 크게 웃돌았다. 아베 총리 자신의 비리는 물론 잘못된 인사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민당 지지율도 10월 조사 때보다 5%포인트 하락한 37%로 나타났다.

또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역시 보수 성향 방송사인 후지TV 계열의 FNN이 16~17일 전국에서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39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아베 내각 지지율이 45.1%로, 지난달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은 37.7%로 4.7%포인트 올랐다.

23일 종료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일본이 대응을 바꿔서라도 연장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14.4%, "종료는 어쩔 수 없다"가 68.3%였다. FNN의 조사 결과만 보면 지

소미아 종료에 아베 내각 지지율을 하락시킨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을 좌우하는 요인은 일본의 국내 이슈임을 이번 두 가지 여론조사가 시사하고 있다.

현재 아베 총리 주변에서는 12월에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해 조기 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선거 쟁점을 헌법 개정의 가부를 묻는 것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한 FNN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헌법 개정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중의원을 해산하고 국민의 신의를 묻는다는 아베 내각의 방법론에 대해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27.8%,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57.3%였다. 그러므로 이런 국민의 지지를 배경으로 12월 중의원 선거가 현실적인 이슈가 될 전망이다. 선거 결과는 국내 요인에 좌우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번 중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예상된다. 첫째, 태풍에 의한 피해 복구를 아베 내각이 외면한 사실, 둘째는 10월 1일부터 소비세를 2%포인트 인상한 영향, 셋째 한국

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관광산업의 피해가 큰 홋카이도, 규슈, 오키나와, 쓰시마 그리고 일부 도카이 지방 등에서의 민심이다. 현재 태풍 피해 지역과 한국 측 불매운동 피해를 본 곳에서는 아베 내각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하니 그 영향이 선거에 어느 정도 나타날지 주목할 만하다.

FNN의 조사로 나타난 각 정당의 지지율은 자민당 36.2%, 입헌민주당 7.8%, 일본공산당 3.2%, 공명당 3.0%, 일본유신회 3.0%, 레이와 신선조 2.5% 등이었고 '지지 정당 없음'이 38.7%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지 정당 없음'이라는 대답이 자민당의 지지율을 웃돌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정치문화는 결국 무관심층이 가장 많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지지 정당 없음' 비율이 60%로 나타난 것도 있다. 이런 정치 무관심층들은 통상 투표하러 가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지정당을 없어도 반(反)아베 세력이 되어 아베 내각을 타도하기 위해 투표장으로 향한다면 일본의 정치가 바뀔 것이다.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택시 해법, 상생방안이 소비자 편익에도 좋다

택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조금씩 정리돼 가던 중 암초를 만났다. 검찰이 타다 경영진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그동안 우버·플러시 등 선발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가 현행법 저촉에 따라 주축하자 카카오택시는 기존 택시업계와 제휴하는 방식으로, 타다는 여객법 예외조항을 근거로 내세우며 급성장했다.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택시 면허가격 하락과 수입 감소를 우려한 택시 기사들의 잇단 자살은 택시·카풀 사회적대 타협기구 합의안을 끌어내는 데 기폭제가 됐다.

국토교통부도 택시와 플랫폼 업계 상생 방안을 담은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객법 개정에 박차를 가했다. 택시업계·플랫폼업계·교통전문가·소비자부문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논의기구를 만들어 공식·비공식 논의

를 이끌어왔다.

논의기구에 타다를 포함시킨 데 반발해 첫 회의에 불참했던 택시운송조합과 택시노조도 두 번째 회의에 참석해 법 개정안 마련에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이번엔 타다 쪽이 문제를 일으켰다. 타다 운영대수를 택시면허 총량의 틀에서 관리하는 허가제와, 택시면허 매입 및 택시기사 복지에 쓸 기여금 납부 방식이 과도하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타다가 서비스의 법적 근거로 내세우는 여객법 시행령을 손질해서라도 타다를 제재하겠다고 국토부가 경고하자, 타다는 곧바로 백기를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타다 쪽을 기소하며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이 재용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과거 한메일 창업 때와 비교하며, 기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혁신과 부딪힐 때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부가 타다의 법적 논란과 관련해 '포괄적 네거티브'를 선언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법규가 기술개발 속도를 따

라가지 못한 면이 있으므로 나도 '포괄적 네거티브'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택시 같은 해법에서는 이 대표와 생각이 다르다. 한메일 창업 당시는 우편사업을 정부만 하고 있었기에, 이메일 사업자들의 서비스에 사할이 걸려 반대할 민간사업자가 없었다. 공무원인 우편 종사자들 역시 일자리를 잃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플랫폼업계가 뛰어난 택시산업은 어떤가? 서비스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은 커지더라도 기존 택시시장을 잠식할 뿐 시장 확대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 출퇴근이나 업무를 위해, 불일이 있거나 놀러 나갈 때처럼 택시를 타야 할 목적도 없이 새로운 택시 서비스가 나왔다고 놀이 삼아 택시를 타는 소비자가 있을까? 생존권 위협을 우려한 택시기사 4명이 잇따라 자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승차 공유 서비스 합법화를 밀어붙이기를 겁지 않았을 것이다.

택시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지난 경쟁으로 기업이 도태되고 시장이 혼탁해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소비자 편익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경쟁의 결과로 카카오와 타다에 택시회사와 기사가 종속되고, 독과점의 폐해가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한정된 시장에 너무 많은 사업자가 참여해 경쟁이 극심해지는 것을 예방하거나 독과점을 막는 것 모두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특히 택시 서비스는 안전이 중요하고, 국민의 이동권 차원에서 대중교통 정책으로 다뤄 공공적 성격을 띠기에 정부가 면허를 관리하는 것을 규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내가 승차 공유 서비스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누구도 공유경제라는 시대 흐름을 거스르기 어렵다. 택시업계도 이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서비스 개선에 힘써야 한다. 또 국토교통부는 중단된 택시제도 개편 실무기구 논의를 속개해 승차 공유 서비스 합법화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이와 함께 월급제 등 택시기사들을 위한 대책도 이번 기회에 꼭 이행되도록 챙겨야 한다. 각 이해당사자가 양보해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진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에드윈 허블 명언
"오감만 잘 갖춰져 있으면 인간은 우주에 무엇이든 탐험할 수 있으며 그걸 모험과학이라 부른다."

은하의 속도-거리법칙을 발견한 미국 천문학자. '우리 은하에서 멀리 떨어진 외부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허블의 법칙'을 발견해 우주팽창설에 대한 기초를 세웠다. 그가 죽은 뒤 그의 이름을 딴 '허블 우주 망원경'이 지구 상공 610km에서 지구 주위를 돌면서 우주 탐사를 하고 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889-1953.

☆ 고사성어 / 학여역수(學如逆水)
배운이란 마치 물을 거슬러 배를 젓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學習猶如逆水行舟不進則退)는 말이다. 원전은 논어(論語).

☆ 시사상식 / 랜섬웨어(Ransomware)
사용자 PC를 인질로 삼는 보안 공격. 갑자기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게 되거나, 저장한 사진과 문서 파일 등을 열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PC뿐 아니라 PC에 연결된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연결된 서버 속 데이터까지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잠긴다.

☆ 우리말 유래 / 들러리
어떤 일에 주역이 되지 못하고 걸다리 노릇만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결혼식에서 신랑이나 신부를 식장으로 이끌고 곁에서 부축하는 사람을 이르던 말이 '들러리 선다'처럼 변했다.

☆ 유머 / 확실한 급주
포장마차에서 매일 소주 두 병씩 먹는 남자에게 주인이 "왜 매일 두 병씩 드시냐?"고 물었다. 그 남자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한 병은 친구 것이고 한 병은 제 것"이라고 했다.

몇 달 지난 어느 때부터는 한 병만 마시자 주인이 "요즘엔 왜 한 병만 드세요?"라고 묻자 그 남자의 대답. "저는 술을 끊었거든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정보 보안에 있어서 공격하는 쪽이 막는 쪽보다 유리한 것은 당연지사다. 일 년 내내 해킹 시도를 막아도, 하루만 방화에 실패하면 허사가 되기 때문이다. 완벽한 설계나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예상치 못한 버그나 에러로 발생하는 취약점을 방어하는 적절한 보안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취약점이 뭔지 알아야 하는데, 검증된 공인기관이 점검해준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셀 수 없이 증가하는 사물인터넷의 취약점 점검을 통해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계획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자수첩



김우람 중기IT부/hura@

정보보안의 딜레마

개인 사생활과 정보를 보호하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전 취약점 점검을 위하더라도, 임의로 네트워크 연결 장비의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반면 해커들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무단으로 각종 정보를 얻어내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보안 의식도 개선돼야 한다. 세계적 기업들은 자신들의 취약점에 대해 알려주면 보상하는 제도인 '버그바운티'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취약점을 이용한 악의적 공격이 일어나기 전에 알려준 이에게 고마움을 답하는 것이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곳이 많지 않다. 중소기업의 경우 취약점을 알게 돼도 적절한 대응이 힘들다고 토로한다. 자신들의 홈페이지나 서비스 취약점을 확인한다 해도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것이다. 공인기관의 취약점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도 개인 사생활의 침해 없이 활용하기도 어렵다. 특정 기관이 개인 사물인터넷 취약점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이 비용만 들어가는 골칫거리가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과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필수적 요소라는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Table with 4 columns: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Includes contact info for non-fiction, political economy, social economy, and international economy departments.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플랜B 대 플랜B 대 플랜B

일진 믿고 나대는 꼴마니들은 어느 사회에나 있다. 국제사회라고 예외는 아니다. 1:1로 붙었다 깨져도 일진에게 일러 바치고 뒤로 숨으면 큰형님께서 해결해 주시니 입만 털면 된다. “형님, 재 믿으면 안 되는 놈이예요”라고 떠벌린 뒤 트럼프 뒤로 몸을 감춘 아베의 잔머리는 유치한 관하지만 효과적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를 상대해야 하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났을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큰형님까지 나섰다. 난감해졌을 테다.

이번 사달의 시작점부터 복기를 해봐도 문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의 잘못은 보이지 않는다. 과거사는 오롯이 일본의 과오이며, 대법원 판결은 한국 법원의 고유 권한이다. 반면 역사와 법적 판단에 관한 문제를 엉뚱하게도 경제와 결부해 시비를 건 쪽은 아베다. 경제로 공격해오니 우리는 불매운동과 일본 의존도 낮추기 같은 경제로 대응했다. 자기소개인 “믿을 수 없는 나라”라며 갑자기 안보로 엮으니 우리도 군사정보공유 중단이라는 안보로 맞섰다.

어느 대목에서도 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의 그릇됨은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일은 꼬여만 간다. 뭐가 문제였을까. 잘못은 없어도 실수가 있었을지 모른다. 이번 일을 큰형님 시각에서 한 번 재구성해 보자. 큰형님은 왕서방과 맞짱을 준비 중이다. ‘일대일로’를 그냥 놔두면 태평양구역을 접수하고 결국은 일진 자리 내놓으라 할 테니 더 크기 전에 눌러줘야 한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세워 인근 꼴마니들이 포위토록 했다. 일본과 인

데스크칼럼

정 일 환

정치경제부 정치팀장



도, 호주 등을 왼팔과 오른팔쯤으로 삼고 한국과 싱가포르, 대만 등이 왼 다리와 오른 다리가 되어 돕는 전략이다. 컨트롤 타워는 큰형님이고, 극동구역 행동대장은 아베, 총알받이는 이니가 제격이다. 그런데 행동대장과 총알받이가 투닥댄다. 둘을 불러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부터 쌓인 감정이다. 그리고 폰돈 문제다. ‘겨우 그런 일’로 글로벌 군사정보 네트워크에 구멍이 났다. 큰형님 눈에는 누가 문제일까.

총알받이는 고지식하다. 옳으니까 직진이다. 행동대장은 뻔뻔하다. 재가 저질렀고 난 형님 편이다. 그런데 둘 다 물러서기엔 너무 멀리 왔다. 모욕감은 이제 와서 굽히는 쪽 뉘이다. 그러니 지소미아는 강을 건넌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제 관건은 세 나라가 지소미아가 종료에 대비해 어떤 카드를 준비했느냐다. 큰형님은 플랜B에 일가견이 있다. 플랜C나 D도 있을지 모른다. 우리와 일본도 플랜B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큰형님의 체면도 생각해야 한다. 왕서방도 플랜B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을 것이다. 결국 최종 목표물은 으니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 왕서방은 한미일이 새로 합

의한 플랜B가 마음에 안 들면 어깃장을 놓을 게 뻔하다. 만만한 상대를 골라 괴롭힐 텐데, 그게 누구일까.

박근혜 정부 시절 어설플 친중 노선에 큰형님이 불편해하자 사드가 들어왔다. 사드는 왕서방의 진노를 불렀고 경제보복으로 이어졌다. 왕서방에게 우리 입장도 생각해주시는 강호의 의리 따위를 기대하게 실수다.

문재인 정부 들어 큰형님은 지소미아 종료가 친중노선의 결과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 큰형님은 이미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이득을 보는 쪽은 왕서방”이라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한 바 있다. 한국은 플랜B를 통해 식어가는 큰형님의 마음을 풀어줘야 한다. 그런데 왕서방이 이번이라고 변방의 입장 따위 봐줄 리 없다. 눈을 왜 그렇게 뜨는지 언니 마음에 안 들면 때려서 길들여온 자들이다.

큰형님은 불쾌하고 행동대장은 약삭빠르다. 왕서방은 잔뜩 버리는 중이고 으니는 철없는 불량난에 신이 났다.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한반도 주변이 온통 화가 나 있다. 그들은 평등한 지 공정한지 정의로운지 별 관심 없어 보인다. 계산기 들고 기다리는 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는 노릇. 결국 플랜B에는 선택이 답일 수밖에 없다. 이번 선택으로 고립무원에 빠진 한반도에 한 가닥 길이 열릴 수도 있다. 하지만 또 실수하면 성질만 더러운 글로벌 호갱님으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

whan@

유현희의 뉴스 카트



유통바이오부 부장대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악에 ‘갑’은 운다

가맹점과도 계약해지가 어려워진다. 뿐만 아니다.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본사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맹점일지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

지난달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개정안)에는 지극히 ‘을’의 입장만을 반영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는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염려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용의 훼손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 유출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등의 항목이 삭제됐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이 개정안을 두고 ‘개악’이라고 입을 모은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자산인 조리 매뉴얼, 서비스 매뉴얼 등을 빼돌리는 것은 사실상 기업의 핵심 정보를 유출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직원이 산업스파이임을 알고도 고용을 유지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식재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가맹점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업계 관계자는 “본사에 불만을 품은

가맹점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사가 위기에 처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사업을 하고 본사의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도 이를 제어할 수 없다면 프랜차이즈의 본질인 균일한 맛과 서비스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개정안을 비판했다.

지난달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국대떡볶이’에 들어가는 재료가 몇 가지인지를 물었다. 차액가맹금의 문제점을 짚기 위해서였다. 차액가맹금은 메뉴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에 대한 가격을 공개하고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제품과 가격 차이를 알리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핵심재료에 대한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

가맹사업법은 ‘을’인 가맹점을 보호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번 개악으로 공정위는 약자의 보호를 넘어 본사에 ‘잠재적 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겼다. 심지어는 약자인 ‘을’의 ‘갑질’은 애써 묵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에만 사로잡혀 ‘공정성’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때다.

yhh1209@

사설

명분없고 민생 외면한 철도 파업 즉각 철회돼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코레일)와의 19일 막판 집중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KTX를 비롯한 광역전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운행이 30~70% 감축되면서 여객·화물 운송에 큰 차질과 혼란이 불가피하다. 국토교통부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코레일 직원과 군 인력 등 대체인력을 동원해 KTX 운행률을 평소의 69%, 광역전철은 82%로 유지하고, 버스 등 대체교통도 늘리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이미 15일부터 준법투쟁으로 열차운행을 지연시켜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달에도 나흘간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2016년에 74일이나 이어진 총파업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과 물류 피해를 가져온 적이 있다.

노조가 내건 조건은 ‘4조2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 4600명 총원, 임금 4% 인상, KTX와 수서고속철도(SRT)의 통합 등이다. 하지만 어느 것도 명분이 없고 무리한 요구다. 코레일의 경영상태는 엉망이다. 부채가 2018년 말 15조5532억 원이고, 적자 규모도 2016년 2265억 원에서 2017년 8555억 원으로 커졌다. 작년 2893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고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1050억 원 적자였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분식회계 의혹이 짙다. 그렇게 성과를 부풀려 임직원들에게 3000억 원 이상의 성과급·상여금을 지급하는 잔치를 벌였다. 이런 모럴 해저드가

따로 없다. 코레일 임직원 수는 2017년 2만 8700여 명에서 현재 3만 2200여 명으로 늘었다. 2년 동안 3500명 가까이 증가했다. 그런데도 노조가 여객운송과 물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총파업을 무기로 인력 수천 명을 더 늘리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KTX와 SRT의 통합 요구도 납득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노조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SRT 출범으로 철도 경쟁체제가 도입된 뒤 요금 할인과 객실서비스 개선 등으로 이용자들의 편익이 크게 좋아졌다는 반응이 많다. KTX의 수익성이 악화하자 SRT와 통합해야 한다는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다.

정권의 낙하산으로 작년 2월 코레일 사장에 임명됐다가 잇따른 열차사고로 물러난 오영식 전 사장의 지나친 노조 편향 행태가 이런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많다. 그는 만년 적자인 경영상황을 무시하고, 막대한 추가인력이 소요되는 4조 2교대 근무제로의 개편을 노조에 약속했다. 이번 총파업의 빌미다.

노조의 역사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방만한 경영구조 개선은 외면하고, 하루 300만 명이 넘는 철도 이용승객과 물류를 볼모로 한 파업은 국민들로부터 전혀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총파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정부는 대표적 부실 공기업의 무리한 파업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노조에 끌려가면 결국 국민부담만 키우게 된다.

세무, 특! 상가 임대 때 꼭 알아야 할 부가세

상업용 부동산을 분양받거나 매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에는 건물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였다면 계약과 동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물론 꼭 임대 목적이 아니더라도 취득한 부동산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을 미리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늦어도 계약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를 통하여 환급받은 후, 해당 사업을 10년 이내에 폐업하게 되면 환급받은 부가가

치세 중 일부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니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포괄양도 형태 폐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용 부동산을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건물 양도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한 상가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하는 때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임대료수익의 10%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를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명기하지 않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줄어들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임대료와 구분하여 계약서에 표기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하도록 하자.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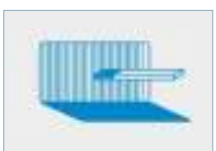
SAMSUNG

내 아내가 입을 옷이니까 내 남편이 마실 숨이니까

물과 먼지가 엉키지 않는
깨끗한 가전이어서 안심할 수 있으니까



먼지와 물을 만나게 하지 않는 것
삼성가전 안심설계의 핵심입니다



응축수를 사용하지 않고 열교환기를
깨끗하게 직접 청소할 수 있는 **그랑데**

삼성건조기그랑데



삼성제트



먼지 흡입과 물걸레 청소를 따로
분리해 더 깨끗이 관리할 수 있는 **제트**